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1월
2023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거래고객
(주)딜리코 김서윤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평촌기업스마트지점 거래고객
(주)새날 조운섭 대표



IBK기업은행

거나

나에게 딱맞춘
카드



이름만 보면
혜택을 알 수 있는

I.B.K카드

가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B카드

저나

남다른 삶을 위한 프리미엄
K카드



04



04 여성시대 특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15 이달의 편지
‘심야 여성시대’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딜리코 김서운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새날 조운섭 대표

81 코너 속 편지
‘모카 케이크에게’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숲속 걷기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가을밤에 든 생각

72



76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3년 11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정민, 이지안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특 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힘약한 뉴스가 많이 들리는 요즘 우리 눈과 귀를 씻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따뜻한 쪽을 향해 두고 싶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승일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한동안 남편의 수술과 입원으로 여성시대를 듣지 못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가족 모두 일찍 각자의 불일을 보러 집을 나서고, 나는 앱을 열어 여성시대를 틀어 놓고 수프를 뜨거운 물에 풀고 있었다.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을 방송하고 있었다.

“새로운 코너가 생겼나 보네~”

혼잣말을 했다.

아주 오래전 사회학을 한 학기 들은 적이 있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 교수님은 몇 명을 호명해서 사회학을 배운 사람으로 직업을 가진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호명된 나는 “저는 사회부 신문기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오~ 사회의 비리를 파헤치는 날카로운 펜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거군. 만만치가 않을 텐데” 하셨다. “아닙니다. 저는 전투력도 없고 겁도 많아요. 신문 한 귀퉁이 작은 지면에라도 소소한 미담을 매일 찾아내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을 들으니, 가슴이 벌렁거렸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야.”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후배가 내게 물었다.

“우리 동네에 제일 많은 병원이 어떤 과목을 진료하는 병원인지 아세요?”

“전철역 주변에 병원은 많던데 골고루 있는 거 아닌가?”

후배의 대답은 뜻밖에도 한의원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이었다. 우리 동네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였다. 나도 졸지에 노인이 되었다. 나이 일흔이라고 하면 노인 측에 들겠지만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불편한 것 없이 잘 지냈었다. 먹는 약도 없었고 관절도 싱싱했다. 항암을 하면서 손발의 신경에 문제가 생기며 하지 불안장애가 시작되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게 외출할 때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다. 내가 노인이 되고 보니 노인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도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어느 날 시장을 조금 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쯤 왔을 때였다. 한눈에도 여든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시장 볼 때 쓰는 형겅으로 된 끌차를 버스에 올리느라 안간힘을 쓰신다. 그전 같으면 별떡 일어나 도와드리겠지만 내 발이 시원찮아 균형 잡기가 겁 나서 ‘우짜지?’ 하는데 내 앞 좌석에 앉아 있던 내 나이는 뒤흔친 남자가 별떡 일어나 끌차를 올리고 할머니의 팔을 잡아 올려드린다. 그날 그 남자의 행동은 유난히 감동을 주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유를 글로는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랬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늙어서 불편해지면 버스 타고 시장 보러 다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인생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지정된 곳에만 현수막을 붙였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횡단보도 인근이나 가로수 사이에도 현수막이 넘쳐난다. 글귀는 또 어떠한가. 선동적인 문구를 남발해 놓은 걸 보면서 아이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으로 될까봐 염려스럽다. 시골에 살 때 봤던 현수막의 글귀는 ‘아무개네 딸내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네’ ‘누구네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네’ 하는 글귀였다. 동네가 축하하고 불과해진 얼굴로 딸내미 입학 축하 떡을 내려 기사 식당으로 들어가던 아저씨의 호탕한 웃음이 그립다.

여성시대를 칭찬하고 싶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여성시대는 배움터이기도 하고 친정엄마처럼 무슨 얘기든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십 년 넘게 나도 그랬다. 방송에서 안 읽어줘도 괜찮다. 글을 쓰면서 이미 디톡스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요즘처럼 정신 사나운 세상 속 시끄러움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이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희망해 본다.

감사한 학부모님

애청자

저는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무 명의 아이와 과학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과학의 기초 개념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실험을 하는 과학 시간을 참 좋아해요. 1학기 때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 풍선을 부풀려 보기도 하고, 투명한 상자에 향 연기를 가득 채우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하니 매시간 실험을 준비하고 치우는 일도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다.

제가 너무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냈던 탓일까요. 며칠 전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가 유리막대를 쥐고 비커 속 혼합물을 휘젓다가 그만 유리막대가 아이의 손안에서 깨져 버린 겁니다. 다른 모둠의 실험을 봐주고 있던 제가 아이의 비명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아이는 손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과학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저는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애써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고! 어~ 다쳤구나. 응~ 괜찮아~ 치료받으면 돼. 선생님에게 기대서 일어나보자. 반장, 3반 선생님 좀 모시고 올래?”

사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과학실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과학을 가르치는 5년 동안 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거든요. 아이는 다른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아서 수업을 계속해야 했지요. 2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실험 전에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를 한 번 더 줄걸. 아니 그냥 내가 유리를 쓰는 실험을 아예 하지 말걸.’

‘아이 손은 괜찮을까?’

‘아이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수업은 끝이 났고, 그제야 아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니 낮선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〇〇이 엄마입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부주의했던 우리 아이 잘못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담임교사가 아니라 어머니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제가 놀랐을까 봐 어머니께서 문자를 먼저 주신 겁니다. 사실 다친 아이 때문에 정말 속상할 분은 어머니이시고, 아이의 실수 때문에 다친 거라도 수업 책임자인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말입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여쭙보니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다쳤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또 울컥하는데 어머니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유~ 아이 실수인데 죄송은요, 괜찮아요. 이번 일로 우리 아이도 실험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교사들의 고민이 참 많은 요즘이었습니다. 집에서 사랑으로 키운 아이를 학교에서도 소중히 대하지만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많았지요. 저 또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사고는 제가 통제할 수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더라고요.

아이가 다친 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린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다친 걸까에 대한 걱정과 함께 죄인으로서 무거운 죄책감이 저를 짓눌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실험은 이제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보여주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상황 발생

변상욱 |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직원들에게는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다. 여름 피서철 해수욕객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물때만 맞으면 해루질객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기에 더 긴장된다. ‘밤에 얇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은 ‘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들어오는’ 주말 ‘사리’ 기간에 더 많이 한다.

그날 비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 사고 없이 지나간 것에 감사하며 여유롭게 달달한 커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경비 전화가 울렸다.

“상황 발생. 상황 발생. 해루질객이 모래톱에 고립된 상황임. 신속히 대응 바람.”

해루질객이 모래톱에 고립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우리 당진파출소는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육상순찰팀을 현장으로 이동시키며 혹시나 해 전동서프보드를 순찰차에 신고 가라는 지시도 내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간자율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위치와 상황 파악에 집중했다.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입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는 석문방조제 25번과 26번 사이인데 모래톱에 한 분이 아직 못 나오셨나 봐요. 빨리 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연안 구조정이 출동했고 육상으로도 구조팀

이 이동 중입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편 파출소에서는 물때를 확인하고 전자해도(V-PASS)를 통해 사고 현장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긴급 섭외했다. 당시 시간이 오후 11시 30분, 간조 1시간이 지났으니 밀물 때면 ‘성구미 선착장’ 쪽으로 밀릴 수도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간 자율구조선을 그쪽으로 이동케 했다. 다행히 장맛비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 모래톱 주변의 ‘부이’를 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위험한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테니 부이를 잡고 가만히 있어 주기만 기도했다.

여기저기 전화 통화 소리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현장으로 이동한 팀들 소식을 기다리는 10여 분이 초조하게 지나자, 육상순찰팀 임 경위에게서 무선통신망으로 연락이 왔다.

“육상순찰팀 임 경위 등 3명 방조제 도착. 고립자 확인했음.”

“현재 상황 보고하라.”

“현재 고립자는 방조제 25번과 26번 사이 50미터 해상에서 방조제 쪽으로 이동 중이며 가슴 부위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접근해서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신 완료. 육상순찰팀은 안전에 최대 유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동서프보드를 가지고 이동할 것. 이상!”

“수신 완료!”

잠시 후 육상순찰팀이 현장 상황을 전해왔다.

“고립자는 어깨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이며 힘을 많이 소모했는지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동서프보드를 이용해 구조에 임하겠습니다.”

강 경사 등 2명이 전동서프보드를 타고 고립자가 있는 해상까지 이동 후, 도착과 동시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다치시거나 불편한 곳이 있으십니까?”

“아니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서프보드를 이용해 선생님을 구조할 예정입니다. 저희 말에 잘 따르셔야 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도구나 해산물은 바다에 버려 주시고 서프보드를 꼭 잡으세요!”

강 경사는 고립자를 밀어 전동서프보드 위로 올리려 했지만 정신이 없는지 몇 번이고 서프보드 줄을 놓쳤단다. 강 경사는 미소 띤 얼굴로 고립자와 눈빛을 교환하고 고립자 손을 서프보드 줄에 다시 가져다 댔다. 고립자가 줄을 잡은 것을 확인한 후, 강 경사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고립자의 허리를 잡고 힘껏 밀어 서프보드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천천히 육상으로 이동했다.

마지막 통신이 끊어지고 파출소 안에 적막이 흐르자 3년 전 경비함정에 근무할 때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생각났다. 방조제 500미터 앞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사람이 바다에 빠져 성구미항 쪽으로 표류하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찾지 못하고 실종된 지 3일 후에 발견된 사고다.

10여 분이 지나자, 육상순찰팀 임 팀장으로부터 무전이 왔다.

“여기는 육상순찰팀, 고립자 구조 완료. 여기는 육상순찰팀, 고립자 구조 완료. 여기는 육상순찰팀, 고립자 구조 완료!”

임 팀장은 얼마나 좋은지 통신망에 큰 소리로 세 번이나 구조 완료를 외쳤다. 얼마나 기다렸던 구조 소식인가! 당진파출소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제야 나도 마음이 놓였다.

육상순찰팀 강 경사는 육상에 도착해서 사고 현황을 파악하려고 구조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 하더라. 고립부터 구조될 때까지 10여 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나도 경비함정에서 근무할 때, 불법 중국 어선 검거 과정에서 생과사를 넘나드는 순간이면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곤 했으니 말이다. 강 경사는 생수 한 컵을 건넸고 구조자는 물을 마시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단다.

“오후 8시 30분쯤 도착해서 방조제 25번 외측 약 300미터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시경 밖으로 나오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방조제 쪽으로 이동하다가 힘이 빠져서 살려달라고 구조요청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바닷길이 열리는 물때가 좋아 해루질객의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강과 달리 바다는 조류의 흐름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서해안은 조수 차가 크게는 9미터를 넘어 더 위험하다.

구조 작업을 마치고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다. 치킨을 풀어놓고 콜라로 건배하는 순간, 다시 경비 전화가 울렸다. 또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지 마음 졸이며 수화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구조된 분이었다.

“아까는 너무 놀라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네요. 바다가 좋아서 자주 찾는데 사고를 당하고 보니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 분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말씀드려도 고맙다는 말씀을 되풀이하셨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피어나는 마음 한구석의 뭉클함은 무엇일까?

<여성시대 문자 모음>

[8024] 엄마의 칠순 선물로 쌍꺼풀 수술을 해 드렸어요. 눈꺼풀이 자주 내려와서 시야의 반을 가린다고 답답해하셨거든요. 수술 후, 엄마한테 “이제 잘 보여?”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저한테 “이쁘게 됐나?”라고 물어보시네요. 사실 이쁘지고 싶으셨나 봐요. 앞으로는 저희 엄마, 예쁜 것만 보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2145] 둘레길에서 운동하다 멧돼지 봤어요. 소리 지르거나 도망가면 안 된다는데 반사적으로 줄행랑을 쳤네요. 어제는 그저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좋은 일이 있으려나, 생각의 전환으로 기쁘게 여기립니다. 근데 조금, 아니 많이 무서웠어요. 이제 밤늦게 둘레길 운동은 삼가야겠어요. 여러분도 운동 중 멧돼지 조심하세요!



[7836] 여긴 제주도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쉬는 날 없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주특별자치도 CCTV관제센터입니다. 저희 요원들은 3교대로 일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무슨 일이 있나 카메라 속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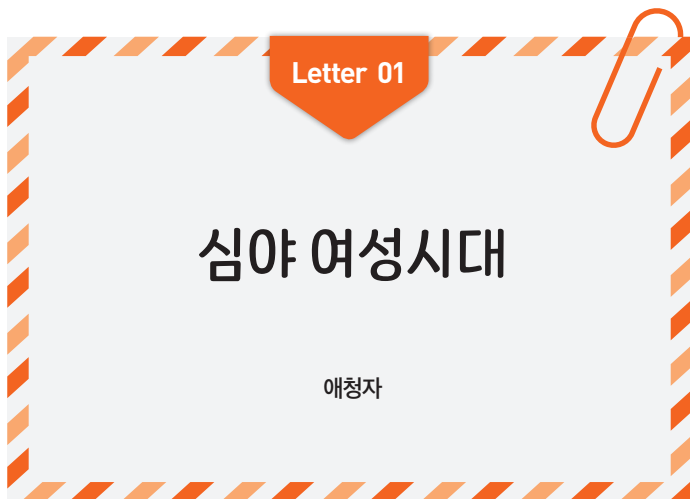
[0067]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남편 혼자서 해준 요리. 생각보다 섬세한 칼질과 깔끔한 플레이팅에 놀랐어요. 짜게 보였는데 짜지도 않고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치워준 덕에 저와 딸아이는 맛나게 먹기만 했습니다.

[0500] 며칠 전 아들 일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 끝나고 아들이랑 둘이 여행하는데 외곽 길에서 현지 여성분의 차량 바퀴가 도랑에 빠져 움푹달짝 못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 일인 듯 그냥 지나쳐 가는데 한국인 특유의 오지랖이 발동해서 저랑 아들은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더군요. 특이한 건, 모인 사람들 전부 한국인이었습니다. 오지랖 넓은 한국 사람들 덕분에 차를 쉽게 건질 수 있었네요. 이것도 선한 영향력이 맞겠죠?



- | | | | |
|----|------------------------|----|-------------|
| 16 | 심야 여성시대 | 38 | 어머니의 신장개업 |
| 19 | 가을은 엄마에게서 온다 | 42 | 뮤지컬 생초보 관람기 |
| 22 | 45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남자 | 46 | 가혹한 계급장 |
| 24 | 58년 개띠 | 49 | 하도 답답해서 |
| 27 | 아빠의 박물관 | 51 | 아내 말을 잘 듣자 |
| 30 | 행복한 건설맨 | 55 | 독립 만세! |
| 32 | 여성시대가 키워준 작가 | 58 | 불편한 가족 |
| 34 | 생명을 살린 '아기 상어'
뚜루뚜루 | 61 | 느리게 사는 행복 |





저는 부산에 사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여성시대 애청자이신 부모님 덕분에 10년 넘게 여성시대를 들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 후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지금까지도 여성시대를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보통의 당당이 분들과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오전 9시 5분부터 생방송으로 듣지 않고 밤 12시 혹은 새벽 1시부터 여성시대를 듣는 심야 당당이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게 된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숙사에서 지냈던지라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점점 밥도 잘 챙겨 먹지 않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사라지더라고요. 거기다 흥기 난동, 펌치기, 살인 사건 등 무섭고 끔찍한 소식들을 들으니 혼자 사는 것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불면증까지 생겨서 새벽 4시 넘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지요. 어두운 방에 혼자 우두커니 누워 있다가 날이 밝기 시작하면 안심하고 잠드는 것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기 전에 음악을 틀어보기도 하고 무드 등을 켜 놓고 자 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모님이 자주 들으시던 여성시대의 푸근한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MBC 미니 앱을 깔고 여성시대를 찾아보았어요. 우와! 특별한 조건 없이 전에 했던 방송을 들을 수 있었네요. 두근두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휘이 휘! 라라랄랄 라라라라랄랄랄 라라랄랄 라라라라 랄라라~ 달려가는 여성시대~”

이 음악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 떠나와 치이고 다쳤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부가 끝나기도 전에 어린 시절처럼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심야 당당이가 되었습니다. 양희은, 김일중 씨의 푸근한 목소리로 슬프고도 재미있는 사연을 들으니,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처럼 여성시대는 제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주는 저만의 심야 라디오가 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저에게는 마음에 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도 제 또래 학생들처럼 소위 ‘인 서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성적에 꿈을 맞추는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결국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정하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네요. 학과 공부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방황도 했습니다. 마치 제 미래가 한정된 것 같고 앞으로도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들만 가득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성시대에서 사연을 들으며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잠들기 전 잠깐씩 들은 라디오가 저한테 어떻게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제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이 자란 것 같아요. 아침의 당당이 여러분들처럼 소통하는 즐거움은 느낄 수 없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당이 여러분, 그리고 여성시대 DJ분들과 제작진 여러분! 삭막한 요즘 시대에 이런 따뜻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Letter 02

가을은 엄마에게서 온다

김현주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엄마는 시장 구석 자리에서 생선을 팔았다. 술의 상전이었다가 술의 친구로 결국은 술의 하인으로 살다 가신 아버지 대신 엄마가 여섯 자식 거두어 먹인 터전이었다. 시퍼런 새벽이 오기도 전에 엄마는 물 좋은 생선을 받기 위해 수산시장에 다녔고 기껏해야 50마리도 되지 않는 생선으로 큰 생선가게에 뒤지지 않게 노점 장사를 했다. 시장에 길게 늘어진 좌판 따라 엄마의 서른, 마흔이 흘러갔고, 엄마도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생선 아지매’가 되었다.

내가 엄마를 처음 만나던 그날도 엄마는 초가을 햇살이 유리알처럼 부서지던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계셨다.

“내가 비린내 나는 거 만지고 있어서 우리 야가 문마땅하나? 그래도 내게는 우리 야가 제일이데이. 이만한 야가 없다.”

그는 엄마한테 너무나도 귀하고 생각하면 멍치 끝 저린 아픔이 있

는 막내아들이었다.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제때 젖 물려본 적이 없어 늘 배가 고파 울었다던 막내아들, 그 막내아들이 나를 ‘내 여자’라며 데려간 날, 스무 살 어린 내 손을 잡으며 엄마는 ‘애기’라 불러 주셨다. 그날부터 엄마는 내게 그이의 엄마이기에 앞서 ‘내 엄마’가 되었다.

나는 긴 좌판 길을 따라 엄마 손에 이끌려 과일 장수, 밥장수, 야채 장수, 양말 장수, 커피 장수 등 엄마의 시장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다.

“아가 우리 막내 며느릿감이데이. 이쁘제?”

“시상에 참허게 생겼네.”

난전에 앉은 사람들의 인사치레를 받으며 나는 내가 정말 ‘예쁘고 참하게’ 생긴 여자인 줄 알았다. 아니 어찌면 그네들의 인사치레에 걸맞은 ‘참한 여자’가 되려고 애썼는지도 모른다.

엄마의 생선 만진 손은 언제나 축축했지만 내게는 전혀 비리지 않았다. 엄마를 따라나서곤 했던 오일장은 누군가의 마음 너머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결 다른 바람이 불고 먹을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이 오면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나는 고질병 도지듯이 엄마 음식 타령을 한다. 직장 다니는 막내며느리 손에 마늘 냄새 날까 봐 마늘을 빵아 찹겨주셨고, 김치는 기본에 밑반찬 10여 가지는 준비해 주신 엄마. 오몸 바쳐 육 남매 키워내고도 치매로 정신을 잃어가던 순간까지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던 엄마. 대소변 씻어내는 내 손을 잡고 “막내야, 미안타” 하시던 엄마. 뭐가 그리 미안하셨을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당당히 받아도 되는 엄마였는데 그리 힘들게 누워 계시다 납골당 아버지 곁으로 가신 지 6년째다.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기에 남편에게 슬쩍 운을 댔다. 소를 키

우는 남편은 새벽부터 일하기 때문에 오후 두 시경에는 꼭 30분씩 낮잠을 자는데도 혼쾌히 따라나섰다. 동그랑땡이랑 꼬치 산적 만들 재료를 샀다. 다지는 기계에 넣고 후루룩 갈아내면 편하지만 엄마는 각종 재료를 나무 도마 위에 일일이 어깨며 팔목이 아프도록 다져내셨다. 나도 동그랑땡은 꼭 도마 위에서 다져서 만든다. 당근, 버섯, 맛살, 햄, 돼지고기, 쪽파, 꼬치에 색깔 맞춰 끼우며 예쁘게 색깔 맞추라고 덜렁대지 말라 하던 엄마가 생각나 양파 핑계로 좀 울었다. “양파가 그리 맵나”하며 남편이 슬쩍 휴지를 건넸다.

“안죽도 엄마가 그리 보고파서 우짜노. 내는 완전 아들도 아닌갑다. 내는 엄마가 당신만큼 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우짜다가 한 번씩 생각나제.”

잔칫집에서 모셔갈 만큼 숨씨 좋았던 엄마. 어깨너머로 본 기억을 더듬어 얼추 흥내를 냈다.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강한 불에 구워서 안 되는 산적과 동그랑땡을 끈기 있게 구웠다. 채반에 예쁘게 줄 세워 가며 동그랑땡을 구워내던 나에게 “앗따, 우리 막내, 인자 잘허네. 혼자 다 해도 되겠다” 하시던 엄마. 동그랑땡과 꼬치 산적 올린 밥상을 마주하고 앉으니 또 눈물이 났다. 내가 왜 그리 주책없이 눈물바람인지 아는 딸아이는 “할머니 음식 맛하고 똑같다, 엄마!”하고 응원해 주었다.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 음식 맛하고 똑같다’나 ‘할머니 음식하고 비슷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다.

이번 주에는 엄마 보러 다녀올 작정이다. 엄마를 만난 그 가을날을 추억하며 만든 산적과 동그랑땡을 맛보시면 하늘의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우리 막내, 인자 살림 잘 허네” 해 주시려나. 엄마가 좋아하시던 가을 소국이 피었다. 엄마 계신 곳에 가져다 놓을 소국도 한 무더기 다듬어 두어야겠다.

Letter 03

45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남자

김나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인 천의 가장 큰 변화가 사람 많고 건물 높은 그곳, 한 지하철역 4번 출구, 높은 빌딩들 사이 1층짜리 유일한 건물. 그 모퉁이에 45년째 한결같이 가장 먼저 출근해 가게 문을 여는 남자가 있습니다. 가게 앞을 청소하고 유리문을 닦으며 그 남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벌써 45년. 간판을 손으로 쓰고 붙이고 건물 벽에 페인트로 글씨를 쓰는 일들로 시작한 작은 가게는 이제 상패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던 터라 동네 단골분들이 주로 찾아주신답니다. 모든 걸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세상이지만 동네 단골분들의 사랑방처럼 커피도 한 잔 나누며 흥정도 하며 천천히 그리고 한결같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이 우직한 사장님과 제가 인연을 맺은 곳은 이 45년 된 가게와 그리 멀지 않은 저희 어머니의 식당이었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던 사

장님 부부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죠. 전 그 당시 33살, 사장님은 63 세였습니다. 벌써 친구가 된 지도 7년이나 되었습니다. 전 올해로 40 살 아이 엄마가 되었고요. 사장님은 칠순이십니다.

지금도 자주 만나 술 한잔하면서 사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얼마 전 로또방으로 바뀐 옆집 피아노 가게 이야기, 그전에 있었던 사진관 이야기, 이젠 사장님의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있는 가게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제 어린 시절 피아노 조율을 부탁드렸던 동네 피아노 가게와 부모님과 같이 가족사진을 찍었던 동네 사진관이 생각 납니다.

간판 이야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영화 포스터를 그리 신 이야기, 간첩 신고 간판을 세우러 전국을 돌아다니신 이야기. 그중 에서도 바람에 설치하려던 간판이 날아간 이야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가끔 사장님과 함께 여행을 다닐 때면 “저 간판을 내가 세웠어” 말씀 하시는데 긴 세월 동안 전국에 사장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 랍니다. 군 복무 시절 슈퍼를 하시던 사모님을 만난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답니다.

7년 전 사장님과의 첫 만남 이후 사장님은 제게 소중한 인연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같이 사는 남자, 우리 딸의 아빠를 말입니다. 사장님은 저의 시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4살이나 어린 제 신랑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예쁜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랑보다 먼저 시부모님과 친해진 사람이 바로 집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시아버지께서 이제 곧 칠순을 맞이하십니다. 아버지께 기억에 남는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성복 아버지,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칠순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Letter 04

58년 개띠

강경목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저는 누가 나에게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질문 하면 “58년생인데요”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꼭 “아~ 58년 개띠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 주는 올해 65세가 된 58년 개띠입니다.

그런데 58년 개띠들은 저를 포함해 거의 다가 하나같이 호적이 잘 못되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8년생 주위의 친구들은 57년생이 많아서 그 57년생 친구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 보니 저마다 하나씩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하고 보니 겨우 한 살이라는 나이로 친구들과 하고 그렇게 다투던 시절이 그림네요.

그나저나 이제 세월이 흘러 제가 올해 65세가 되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으니 읍사무소에

서 신청하라는 통지가 와서 ‘아직 나는 젊은데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나?’ 생각하며 서류 신청을 마치고, 57년생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짜식, 이제사 어른이 되었나? 야, 이제는 경로우대니까 너는 KTX 기차도 할인된다. 좋겠다. 아! 토, 일은 할인 안 된다~”라고 놀림 아닌 놀림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퇴직하고 옆 지기의 고향인 강원도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노인 된 기념으로 57년생 형님들(친구들)이 한잔 살 테니 기념으로 기차 할인 받아서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차역에 가서 직원에게 경로우대 기차표를 어떻게 끊느냐고 물어봤더니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인된 승차권을 끊어 주더군요. 휴대폰으로 예매하는 법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정말로 오랜만에 서울역에 내려왔습니다. 평일임에도 서울역에는 많은 사람이 대합실에서 바빠들 움직이고 있더군요.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잠시 넋을 놓고 있는데 어디선가 입맛을 당기는 구수한 버터 향이 났습니다. 대합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예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살 때 흔히 봤던 햄버거 가게에서 풍기고 있더군요. 약속 시간도 많이 남았고 또 우리 동네에선 먹기 힘든 음식이라 발길을 돌려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에 가득한 손님들을 비집고 주문하려 보니 사람들이 웬 기계 속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터치하기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 차례가 되었는데 기계 앞에 선 저는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뒤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화면 속 메뉴가 다 처음 보는 거라 추천 메뉴로 부탁한다고 했더니 또 “콜라요? 감자요?”하고 묻기에 무조건 “예~ 예~ 해주세요” 했더니 어느새 주문이 끝났고 전광판

에 내 번호가 노랑게 되면 가서 받으라고 알려주더군요.

사람 많은 매장에서 그렇게 음식을 받아와 자리에 앉아 먹으려니 참으로 쑥스럽고 불편한 합석도 하게 됐습니다. 비싸게 구입한 햄버거를 맛도 못 느낀 채 후딱 먹고 밖으로 탈출하듯 나왔어요.

오랜만의 서울 나들이라 서울역 주위와 예전에 자주 갔던 남대문 시장 쪽에 가보려다 이른 가을비가 많이도 내려서 포기하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헌혈하는 곳이 있어서 ‘오랜만에 좋은 일 좀 하자’하고 헌혈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좋은 일이다 생각하며 한참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담당자분과 인사를 나누고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줬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하루 사이 65세가 되어서 헌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주민등록상 생일이 9월 19일로 되어 있고 헌혈의 집에 찾아간 날은 9월 20일. 하루 차이로 65세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셔서 헌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기다렸고 나는 헌혈을 할 수 있다, 하고 괜찮다, 주장했지만 서류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맥이 빠지고 허탈해서 그곳 근무자에게 65세 이상은 ‘헌혈 불가’라고 써 붙이면 이런 낭패는 없을 거 같다고 얘기했더니 헌혈 불가 항목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붙일 순 없다 하더군요.

밖으로 나와 보니 가을비는 속절없이 내리고 우리 개띠들도 속절없이 늙어가고 내 마음도 주룩주룩 속절없이 내리는 빗줄기처럼 슬프기만 했습니다.

Letter 05

아빠의 박물관

애청자

저희 아빠는 전기 관련 사업을 하십니다. 지금은 사위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인정받아서 일이 제법 들어오는 편입니다. 경기도 쪽에 기계 장비와 자재를 둔 창고가 있고 이 창고를 얻기 전에 아빠가 10여 년 동안 사용하셨던 작은 창고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창고를 한 곳으로 합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빠는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셨어요.

그러다가 그 작은 창고의 땅 주인이 땅을 급하게 팔기로 했다면서 창고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정리하려고 했던 창고인데 너무 잘됐다 싶었죠. 그런데 아빠가 동남아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미리 일정을 잡아놓는 바람에 창고 정리를 저희 부부에게 맡기셨어요. 쓸만한 자재들은 큰 창고로 옮겨다 놓고 서류들은 모두 폐기하라고 분부하셨죠.

아빠가 10여 년 동안 사용했던 창고였기에 케케묵은 짐들도 많았고, 사용하던 자재들, 온갖 서류들, 잡동사니들이 가득 있는 곳이었기에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마음의 준비는 했죠. 창고에 도착해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서류들부터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큰 서류철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재활용할 종이들과 폐기해야 할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죠. 10여 년 동안만의 자료인 줄 알았는데 이 창고를 얻기 전 자료들까지 모두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서 약 25년간의 자료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버리기 위해 펼쳐 보았는데 보다 보니 25년 동안의 아빠의 행적이 고스란히 모여 있는 박물관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빠는 사업한다고 바쁘게 다니셨지만 이렇게 할 성과가 난 것도 없이 몇 번의 부도도 맞고 가족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빠를 원망했던 시기였고, 왜 다른 아빠들처럼 성실하게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일확천금만을 바라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었더랬죠. 그런데 그 파일들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아예 의자를 가져와 자리를 깔고 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큰 전기 공사를 여러 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큰 공사들을 했는데 왜 돈을 못 번 거지?’ 의문을 가지고 파일을 넘기다가 보게 된 소송장.

‘아~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은 거였군.’

‘아~ 이 공사는 중간에 누군가가 돈을 횡령했군.’

‘이 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군.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갈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군.’

‘와~ 이때 진짜 큰 소송이 있었네. 이래서 내가 결혼하던 해에 아빠가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었던 거였군.’

‘이때 작은 아빠랑 같이 사업했었네. 아~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군.’

‘아~ 엄마가 엄청 아팠던 해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었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는 큰 공사 대신에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시도하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태양광, 바이오산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의 개발, 연구 과정이 들어있는 카탈로그들, 문서들 정말 다양했습니다.

몇 시간을 남편과 앉아서 이 서류들을 분리하면서 아빠의 인생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정리에만 거의 하루가 걸렸고, 자재들 물건들을 정리하는데도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 아빠가 허송세월하며 뜬구름만 잡으려 다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빠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정신없이 하며 다녔었던 것이었어요. 아빠가 하던 사업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지금의 사업을 규모 있고 지혜롭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계단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경험 없이 얻어지는 건 없나 봅니다.

아빠가 안 계신 일주일 동안 저희 부부는 아빠의 박물관을 잘 관람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새로운 창고에서 또 다른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새로 쓰고 있는 이 역사도 앞으로의 삶에 디딤돌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이라면 이런 문구를 걸고 싶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신 아빠를 더 많이 이해하게 해준 아빠의 작은 박물관! 이제 폐관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박물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etter 06

행복한 건설맨

강재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나이 스물다섯의 청춘은 하루하루가 고달픈 날이었다. 맨몸으로 서울에 와서 먹고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는 언제나 발등의 불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전단지 돌리기, 식당 종업원, 드라마 보조 출연, 전병과자 장사 등을 하면서 지낼 곳을 찾았다.

그러다가 안착하게 된 곳이 지금의 건설 현장. 현장 일은 늘 위험이 도사려 있다. 사고는 작고 큰 것을 가리지 않는다. 차별도 없다. 하여 현장에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제일’이다. 또 현장은 역동적이면서도 건축가와 디자이너, 전기, 설비, 미장, 타일 등을 비롯해 목수들의 기술과 역량, 지혜와 감각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지어진다. 건물은 단순히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자연의 향기와 사람의 온기가 함께 어우러져 기억의 저장 공간

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32년을 이곳에서 일했다.

현장 일은 일정하지도 꾸준하지도 않다.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서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나를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 삼아 다른 무언가에 도전했다. 자격증 공부였다. 제일 먼저 취득한 게 보험설계사이다. 그러다가 다시 현장 일이 잡힐 땐 본업인 목수로 돌아간다.

인생이 익어감에 따라 일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퇴근 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어지는 아내의 인사말 한마디에 쉬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아내의 그 음성은 축 처져 있는 나의 어깨를 올라가게 만드는 마법이다.

새벽 다섯 시, 눈 뜨기가 무섭게 작업복을 챙겨 입어야 하는 일상. 어제까지 판교 현장 일이 끝나고 오늘은 서울 명동 현장 일이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무거운 연장을 배낭에 넣어 어깨에 메고 수많은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에 출근도 하기 전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온다.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는다. 희귀질환인 루푸스와 쇼그렌 증후군을 동시에 앓고 있는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잠들어 있는 내가 혹시라도 꺾까 봐 까치발로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이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입맛이 없어 밥알은 입 안에서 곱돈다. 이럴 땐 습관처럼 밥을 국에 만다. 후루룩 마시듯 먹는 국밥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입맛이 되살아난다. 아내에게 “당신 손맛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거야!”라며 엄지 척 하곤 출근길에 오른다.

내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건설 현장은 지혜와 철학을 가르쳐주는 거친 인생 학교이기도 하다. 오늘도 나는 바쁘게 일하고 내 손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주저 없이 달려간다. 나는 행복한 건설맨이다.

Letter 07

여성시대가 키워준 작가

양정숙 |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저는 올해 81세 된 작가 양정숙입니다. 제 이름으로 책이 13권이 나왔으니까 과히 나무람 하지 않을 것 같아 감히 작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때가 사십 대 후반이었습니다. 아이들 삼 남매가 자라 둘은 대학에 가기 위해 외지로 떠났고, 하나 남은 아이는 고3이라 밤늦게 돌아 오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가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빈 새둥우리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습니다. ‘손숙, 정한용’ 씨가 진행하는 MBC 여성시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 번 해볼까?’

사연을 써서 보냈는데 뜻밖에 제 글이 채택되어 방송됐습니다. 제 목이 ‘무등산의 정’이었습니다.

‘그래! 이걸 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 방송을 계기로 나의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낱밤을 새우며 글을 썼습니다. 잡지, 신문, 방송 등 독자와 청취자의 글을 받는 곳이면 가릴 것 없이 기웃거렸습니다.

수필로 등단하고 수필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식견의 부족함에 갈증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나의 학력이 탄로 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글을 발표하는 지면 인적 사항에 으레 학력을 쓰라는 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글 쓰는 일도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낮은 학력에 늘 숨고 싶어 하는 나에게 문우 선배가 검정고시에 도전해 보라고 했습니다. 65세에 고졸 자격을 얻었습니다.

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등록해서 공부하던 중 일간지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됐습니다. 그때가 73세였습니다.

꾸준히 공부한 덕으로 책 13권이 나왔고, 올해 안에 2권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작가가 된 일이 꿈만 같습니다.

그때 MBC 여성시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MBC에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기념으로 며칠 전에 나온 13번째 책 <전쟁과 소년>을 여성시대에 바칩니다. 사실을 바탕에 두고 상상력으로 6·25 이야기를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Letter 08

생명을 살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박지호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저는 30대 남성으로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어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 사연을 남기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성시대를 들으며 출근하는데 이날에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노래 비트에 맞춰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된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나 예비군 훈련에 가면 늘 배우는 게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이걸 배웠는데 언젠가 쓰일 날이 있을까? 알아두면 참 좋긴 한데’라는 생각을 하며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자가용을 타고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늘 퇴근하던 길을 운전하며 저 멀리 삼거리에 빨간불 신호가 들어와서 멈춰있는

차들이 보여서 저도 여유 있게 멈춰서면서 습관적으로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하얀 승용차가 백미러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멈추겠지. 설마?’

그 순간 뒤차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정지한 상태인 제 차를 들이 받아버렸습니다. 브레이크를 전혀 안 밟았는지 박은 뒤에 충격을 받아 앞으로 튕겨 나간 제 차를 또다시 박아버리더군요. 살면서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본지라 어벙벙한 상태로 ‘이게 무슨 일이지? 실화인가?’ 판단하느라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뒤차 운전자 그러니까 가해자분이 나오셔서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주차 기어로 옮기고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해자분께서 죄송하다고 90도로 인사하셔서 저도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사고난 부위를 보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가해자분께서 “헉~” 하더니 뒤로 넘어지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저는 재빨리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덮어드리고 도로 위라 주변에 차들이 썩썩 달리고 있고 가해자분이 넘어지신 차선으로도 저 멀리 차들이 빨리 달려오고 있었기에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 달려오는 차를 급하게 멈춰 세우고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다행히 저희 앞에서 급정거한 운전자분이 젊은 분이셔서 주변 도로 통제를 도와주셨고 저는 119에 전화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112에 전화해서 걸어서 상황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급정거한 운전자분이 가해자분께서 숨을 안 쉬는 거 같다고 해서 가서 보았더니 미동도 없고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고 손과 발이 말려있고 손목에 맥을 잡아보니 맥박도 안 느껴지고요. 119에 다시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영상 통화로 전환되어 소방대

원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하여 저는 그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 하였습니다.

군대에서 인형에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봤어도 실제 사람에게는 처음이어서 두렵기도 했는데 실습할 때처럼 가슴에 가상의 줄을 긋고 가슴의 정중앙에 손을 대고 팔을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피스톤 운동을 하라는 기억대로 똑같이 실시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침에 여성 시대에서 들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의 비트를 생각하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도 가해자분께서는 미동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그즈음 119 구급대원분들이 도착하여 교대해 드렸고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여러 차례 실시하시더군요. 112에서도 몇 분 뒤 도착하여 교통 정리를 해주고 음주 측정과 동시에 인적 사항, 블랙박스 영상 등을 녹화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은 가해자분에게 제세동기로 몇 번 하더니 응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출발했고 저는 그때야 정신이 좀 들더니 온몸이 떨리면서 길가로 가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 난 차를 길가로 옮겨달라고 하셔서 제 뺨을 두 번 때리고 심호흡 좀 해서 정신 차리고 경찰관님들께서 사고 현장 사진을 찍으셨지만 저도 혹시 몰라 동영상으로 빙 둘러서 촬영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도저히 운전할 엄두도 안나고 제 자동차도 많이 망가진 관계로 레커차에 싣고 집 근처 카센터로 옮긴다고 해서 저도 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척추와 목뼈 쪽을 크게 다쳐서 일주일 입원하고 통원 치료에 세 달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수영도 다닐 정도로 회복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분은 어찌 지내시나 궁

금했고 부디 건강을 회복해 잘 지내시기를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늘 똑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전 유성소방서라고 하면서 제가 ‘하트 세이버’로 임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환자가 차도가 좋아서 잘 회복되면 하트 세이버로 임명되어 표창장과 함께 배지가 수여된다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분이 건강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 가는 중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허리와 목을 다쳐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생기나 했었는데요. 6월 13일 그날 저희는 소방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간 산부인과에서 저희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하트 세이버로 임명된 날 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2주 전에 임신을 확인하였고 2주 뒤인 7주 차에 심장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2년 만에 생긴 아이의 심장 소리에 저 자신이 오히려 구원받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방송국분들의 작은 날갯짓이 그날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현재 저희 가정에 생명이 잉태되는 일까지, 세상에는 우연이지만 인연에서 필연이 되는 일이 발생하네요.

앞으로는 이번 경험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5~10분 사이 골든타임에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알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Letter 09

어머니의 신장개업

임선희 | 스위스

작 년에 어머니께서는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개업이다” 하시며 버스 정류장 앞에 작은 가게를 얻으셨다.

1978년 큰딸인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어머니는 서점을 시작했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자 문을 닫았다. 그리고 시작된 가난의 긴 터널. 집도 서점도 모두 잃고 우리 가족은 수리산 기슭 무허가 건물로 이사를 했다. 인생을 포기한 듯 보이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또 다른 장사들을 시작하셨다. 산에서 밤을 주워 팔며 시작한 노점 장사. 시장 여기자기를 옮겨 다니고 쫓겨 다녀야 했다.

그러다 어떤 은인을 만나 시장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채소 장사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매서운 시간도 빠르게 흘렀다. 어머니는 살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많은 날을 밀천 삼아 빗을 갠



아가며 우리 삼 남매를 배웁지 않게 하셨고 막냇동생을 의대 공부까지 시키셨다.

나는 20대부터 학비를 벌며 버거운 나날을 보냈고 남편을 만나 스위스로 이민을 왔다. 내가 세 아이를 낳고 기르며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던 10여 년 동안 나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른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들 셋을 낳도록 산바라지 한 번 못 해주셨다고 미안해하면서도 장사를 계속하셨다. 내가 아는 건 그뿐이다.

나는 7, 8년 전부터 해마다 가을이면 어머니를 뵈러 한국에 간다.

몇 년간 장사를 쉬셨던 어머니는 다시 노점에서 채소와 과일을 팔기 시작하셨다. 멀리 사는 내가 가더라도 도울 수도 없고 그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 옆에서 보내는 3주간 나는 어머니의 휘어진 다리와 허리를 보며 삶의 무게에 눌려 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볼 수 없었던 나의 젊은 날을 후회하곤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나를 어머니의 인생에 들어가게 한다.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며 사시는구나. 힘든 세상과 싸우며 자식들을 지켜내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세상을 보듬고 나누며 장사를 하시는구나!’ 깨달았다.

어머니는 식구가 많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야채를 사면 과일 몇 개를 덤으로 주며 “살기가 빠듯할 때는 과일까지 사 먹기가 어려워” 하신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에게는 돈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찾아 넉넉하게 싸 주고, 인사를 잘하는 초등학교 손에는 사과 하나를 쥐여 주신다. 이것이 어머니가 사는 세상이고 소통의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어머니의 장사를 반대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치이며 길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는 건 쉽지 않다. 가게를 얻으라고 말씀드려도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니 딱히 도울 길이 없다.

그러던 어머니께서 작년 여름 가게를 얻으셨다. 떡도 돌리고 작지만 개업식도 하셨단다. 가을에 갔을 때 내게 ‘내 인생 마지막 개업’이라고 하셨다. 72세 어머니의 마지막 개업. 사람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인생을 정리할 텐데 내 어머니는 새로운 시작 ‘신장개업’을 선택한 것이다.

어머니는 야채랑 과일을 손질해 팔며 폐지 모으는 어르신께 여름에는 복숭아 하나, 가을에는 홍시 하나를 건네신다. 오랜 기간 힘든 장사로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파 걸음도 겨우 걷는 어머니. 얼마 전

동생은 어머니 다리가 좋아져 걷는 것이 덜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연골이 닳아 뼈끼거리는 무릎도 세상과 더불어 살려는 어머니를 막지는 못하나 보다.

나는 이제 또 한국에 갈 것이고 어머니는 장사해서 모은 돈을 봉투에 담아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주실 것이다. 나는 내 아이들과 할머니가 왜 장사를 하시는지 많은 대화를 한다. 풍족한 나라 스위스에서 태어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들. 특히 큰아이는 여러 면에서 스위스와 한국을 비교한다. 무엇보다 스위스보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일하며 즐거우신 것 같다며 엄마도 아직 젊으니, 뭐든지 시작하라고 나를 격려한다. 어머니는 내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삶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십이 넘은 나도 용기를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언젠가 내 어머니의 인생을 한 편의 글로 남기고 싶다는 꿈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지난달부터 25년간의 스위스살이를 기록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 사이 큰아들은 대학에 입학해 방을 얻어 자립했고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들이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중에 10만 원을 할아버지 용돈으로 드렸다. 그리고 가끔은 내게 꽃다발이나 가방을 선물이라고 주고 간다. 나는 이런 아들의 격려를 받으며 한국어 교육 공부를 무사히 마쳤고 스위스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늘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도전이 두렵지만 그래도 도전하게 되는 이유다. 도전하는 법을 알게 해주신 내 어머니, 오늘도 한결같이 가게 문을 열고 세상과 더불어 살며 장사하고 계실 그녀를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Letter 10

뮤지컬 생초보 관람기

박영옥 |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로

한 달 전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뮤지컬 본 적 있어요? 옥주 현 씨 나오는 뮤지컬 있는데 함께 보러 가실래요?”

“뮤지컬? 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엄마가 뮤지컬 보고 그럴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어디 있었게? 뮤지컬 티켓값 많이 비싼 거 아냐?”

그랬더니 알바 월급 타고 용돈 절약해서 ‘레베카’ 예매를 한대요. 자기는 가끔 친구들과 보는데 감동이 남다르다고 엄마한테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십이 넘는 나이에 딸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뮤지컬’이란 걸 보러 갔습니다. 매일 살림한다 뭐 한다 집콕만 하다가 아주 오랜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딸 뒤통수만 졸졸 따라다니며 진짜 오랜만에 광역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한강변도 달려보고 기분이 그리 좋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비싼 티켓값을 냈으니 점심은 딸이 좋아하는 걸로 사주고 우린 드디어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요. 딸이 간신히 힘들게 티켓 구했다기에 생색내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보니 빈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출연자들 포스터 앞에서 티켓 들고 사진 찍느라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저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딸이 망원경인가 뭔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집에서 안경을 챙겨왔고 게다가 우리 좌석이 많이 뒤쪽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흘러드는 화장실 다녀오고 자리 찾아 앉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음악과 화려한 무대와 함께 애절하고 분노하고 기뻐하는 희로애락의 대사와 노래들이 우렁우렁 전율이 이는데, 저 소리가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일까 싶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 손짓·발짓을 넋을 잃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밀려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들. 옆자리 딸내미한테 물어봤을 딱 좋겠구먼 그럴 수도 없고. 저는 1부 내내 궁금증에 사로잡혀 살짝씩 공연을 놓쳤습니다.

1부 끝나고 화장실 가는 시간. 화장실 줄도 길기만 하데요. 저는 줄서 있으면서 딸한테 물었지요.

“근데 딸! 왜 옥주현 씨 안 나와? 옥주현 씨 나온다고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눈을 뚫그랴게 뜨는 거였습니다. 제 앞에서 있던 아가씨는 제 목소리가 컸는지 뒤돌아보고는 알 듯 모를 듯한 웃음을 띠더군요. 저는 다시 물었지요.

“아~ 옥주현 씨는 2부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껏 안 나온 거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껏 나왔잖아요! 까만 원피스 입은, 아까 옥주현 씨 노래



끝났을 때 엄마도 박수 치고 그랬잖아.”

“아, 그 사람이야? 난 잘 안 보여서 누가 누군지 몰랐어.”

참으로 멋지다고 감동하며 소름 돋으며 박수쳤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제 궁금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 또 물었지요.

“근데 딸, 이 뮤지컬 립싱크야? 직접 하는 거 아니지? 아무리 봐도 직접 하는 거 같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딸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제 손을 잡아줍니다.

“애가, 애가! 진짜 눈 튀어나오겠네? 왜?”

“엄마, 제발 좀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아휴~ 뮤지컬을 립싱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직접 부르는 거지. 어쩐 일이야, 울 엄마 어이 없게….”

딸은 기막혀하며 난감해했습니다.

“안 되겠다. 울 엄마, 이젠 종종 뮤지컬 보러 좀 와야지.”

그래도 창피하다고 구박하지 않고 그리 말해주는 딸에게 저도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춤추며 많이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서 긴가민가했어. 너무들 대단하다. 우린 조금 빨리 걸으면서 애기해도 목소리가 숨 차는데 어떻게 저 많은 대사를 다 소화하면서 울 동과 노래를 완벽하게 하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정말 그랬습니다. 그 궁금중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던 거예요. 딸이 웃으며 한마디 더 덧붙이네요.

“아마 뮤지컬 보면서 립싱크 아니냐고 묻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아휴~ 창피해라.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잘못된 게 딸이 티켓을 예매했다고 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등장인물도 보고 뮤지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챙겼으면 좋을 걸 그냥 졸졸 딸만 좇아왔으니, 원!

2부에서는 집중해서 관람할 수 있었는데 멋지고 대단하고 너무 좋아서 안 데리고 온 남편한테 미안할 정도로 감동에 또 감동했습니다.

딸 말대로 앞으로는 다른 데 아끼고 아껴서 가끔이라도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티켓값이 한 두 푼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도 왔네’ 그런 뼈따한 생각을 조금 했는데 돈 안 아까울 만큼 커다란 감동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십 중반에 처음 본 뮤지컬,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Letter 11

가혹한 계급장

김연화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저는 60대 후반으로 30년째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광부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지 40년. 90년대 초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이포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딸은 8살, 아들은 5살이었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을 하고 저도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친정집의 도움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주택가에서 시작했지만 2년 후에는 숙박업이 많은 곳으로 옮겨 상가가 아닌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에 놓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벽까지 장사를 해야 했고 주말과 연휴, 피서철에는 밤을 새워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11살 된 딸 아이가 남동생에게 엄마 노릇 누나 노릇을 다하며 달걀프라이와 라면 삶는 것에 익숙해졌지요. 엄마 얼굴 보는 날은 드물어졌고요. 그래도 엄마에게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잘 자라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날에 놀이공원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딸이 고3, 아들이 중2 때까지 남매가 한방을 쓰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마음속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집 마련과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남편이 급성담낭염으로 쓰러져서 보름 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깨어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병원생활을 해야 했고 병원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대출이자에 월세 내는 날짜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고 퇴원 후에도 남편은 일 년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몇 달 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도로변에 놓고 장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철수하게 되었고 또다시 관광객이 주 고객인 곳으로 오게 되었지요. 다행히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여 일하며 가게 일을 도와주어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장사를 해왔습니다. 나는 목표가 있었고, 우리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지요.

긴 세월 동안 딸은 척추 수술을 했고 저는 무릎인대 수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지 30년. 드디어 우리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지금도 헛갈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아주 작은 집이지만 만족합니다. 저는 이사할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유방암 4기로 암이 뼈

에 전이가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결승점만 보고 살아온 저에게 돌아온 것이 이렇게 가혹한 계급장이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정동진 바닷가에 퍼질러 앉아 먼 수평선을 향해 몸부림치며 소리치고 통곡했습니다. 난 왜 행복해지면 안 되는지? 난 왜 내 집에서 살아보면 안 되는지? 내 집에 이사 가서 우리 아들 장가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딱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고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보니 파도 소리가 살며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너의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너의 몸을 내가 흡사시켜 놓고 누구 탓을 하는 거냐고. 맞습니다.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후회는 때늦었고 다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몇 년 전부터 가게 문 닫고 가족여행 한 번 가자고 할 때마다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고 30년 동안 했던 장사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딸은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엄마의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생활력을 치료에 쏟는다면 엄마는 꼭 이겨낼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을 한번만 가보고 싶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이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아끼세요.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이 세상 끝까지 행복하세요.

Letter 12

하도 답답해서

애크자

우 리 딸이 어느덧 성장하여 예쁜 숙녀로 잘 자라주었고 3개월 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집 떠나 타지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남자를 만났고 결혼하겠다고 양가에 인사 하고 상견례도 하고 양가 부모가 결혼을 승낙한 상태입니다.

딸은 원룸에서 자취하며 직장생활하고 예비 사위 또한 타지 생활이라 원룸을 얻어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가 살던 원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어차피 3개월 후에 결혼하니 지금 싰혼집을 구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했는데, “엄마, 우리 싰혼집 구하면 거기에 가구, 가전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저도 원룸 정리하고 결혼 전에 미리 들어가 살면 어때요? 저쪽 부모님께서는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셨대요.”

딸이 느닷없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로 훅! 치고 들어오는데 저는 충격을 받고 어안이 병병, ‘아들 가진 부모라 그렇게 쉽게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3개월 후에 결혼할 것이고 미리 신혼집 구해 가구·가전도 넣어야겠고 합치면 우리 딸 원룸 월세 3개월 치 생활비를 아끼게 되겠죠.

그러나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있다 보니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 3개월 전인데 미리 한집에서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 또한 원룸 전세를 살다가 결혼했고 신혼집이 미리 구해졌지만 결혼식하고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딸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어차피 오빠랑 저 3개월 뒤에는 결혼하는데 신혼집 구하면 살림은 다 사 넣을 텐데 오빠 혼자 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내가 사는 원룸 월세도 아깝고, 오빠 부모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만 허락하면 좋다고 하시는데 엄마 아빠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고 결혼 승낙도 받았으니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결혼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쪽은 딸은 없고 아들만 가진 부모라 그 허락이 쉬운지 몰라도 우리는 딸 가진 부모라 허락 못 하겠어. 네가 딸이라서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남동생이 그런다고 해도 똑같이 허락 못 해. 결혼 전 동거 그거는 허락 못 한다.”

우리 부부는 현재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부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부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젊은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여성시대에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Letter 13

아내 말을 잘 듣자

이정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춘남녀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어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차에 접어들면 설렘은 가라앉고 덤덤하게 된다더니 우리 부부도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먼저 수긍을 하거나 양보해서 가정의 평화에 이바지한답니다. 이렇게 열 번이면 열 번을 양보하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 그것은 운전이랍니다. 동승한 아내는 운행 중에 수시로 간섭과 참견을 하는데요. 제한속도 50킬로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눈금이 60이라는 숫자에 임박하면 바로 태클 들어와요.

“여보, 제한속도 50킬로인데 60킬로로 가면 어떡해? 속도 줄여!”

“60킬로 이하는 괜찮아”라고 알아듣게 설명해도 도무지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운전 중에 차선을 바꿨더니 “아이 여보,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바꾸면 어떡해?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는 끌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참으며 대답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잖아”라고요.

또 한 번은 회전교차로를 지나는 중이었어요. 통상적으로 건너 차선에서 차가 한 대 진입하면 그다음은 우리 차선에서 한 대가 진입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저쪽에서 오는 차 먼저 보내.”

“이것 봐. 회전교차로에서는 서로 한 대씩 사이좋게 진입하면 돼. 왜 자꾸 나에게만 양보하라는 거야?”

이러다 보니 아내가 동승하면 차 시동을 켜고 동시에 제 자존심도 시동을 켜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지난주 수요일에 발생했어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 대전 역 인근에서 볼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방금 마쳤다 하기에 비도 오고 해서 차를 헬스클럽 지하 주차장에 댈 테니 내려오라 했어요. 내려온 아내가 마트에 가자네요.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니 점심으로 따뜻한 칼국수라도 먹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부부인데 마침 두 분이 댁에 계신다고 해서 이른바 ‘번개모임’이 성사된 거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초대한 부부께서 제안합니다. 옥천 쪽으로 가다 보면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으니 차 한잔하고 오자는 겁니다. 갑자기 판이 커지는 느낌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옥천으로 출발했어

요. 오전보다 빗줄기는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구 판암동을 지날 무렵, 아내가 차 계기판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여보, 연료 경고등에 불 들어왔어.”

‘또 참견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뒷자리에 모신 부부의 눈치도 있고 해서 점잖게 대답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사실 며칠 전에 연료 경고등 불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더 운행할 수 있으니 카페 다녀와서 넣자고.”

“아니~ 그러다가 연료 떨어져서 차가 멈추면 어떡해?”

‘아후~ 또 잔소리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묘한 자존심이 발동하면서 “아, 괜찮대도 그래”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 운전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천 삼거리에 다다르자 차에 진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라? 왜 이러지?’ 차는 몇 번을 푸드덕하는 소리를 내더니 멈추었고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이내 꺼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차의 고장 유무보다 뒷자리에 모신 부부에게 더 죄송했고 이내 진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비상 깜빡이를 켜지만 요란하게 클랙슨을 울리며 지나가는 차들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저는 일단 차 밖으로 일행을 대피시키고 지나는 차량을 향해 연신 위험을 알리는 손짓을 합니다. 비는 점점 거세게 내리고, 왼손으로 우산을 치켜들고 오른손으로는 지나는 차량을 향해 세차게 흔들며 땁니다. 그 와중에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에 전화하는데 그 ARS는 왜 이리 더디고 연결이 어려운지요. 게다가 소변은 참을 수 없이 마렵고 서서히 한기가 느껴지는데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어요. 30분 이상을 기다려 견인차가 드디어 도착했고 차를 매달은 기사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네요.

“저 죄송한데요. 차가 좁아서 네 분을 다 태워드릴 수 없어요. 운전



자분만 타시고 나머지 분은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일행을 여기에 남겨 뒀야 하나요?”

“네, 어쩔 수가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머금고 저만 전인차를 타고 주유소에 도착하여 연료 주입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차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다시 현장에 도착하여 아내와 이웃집 부부를 모시고 일정대로 카페에 들러서 차 한잔했지만 맛을 느낄 수도 없었고 부끄러움에 일행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좌충우돌한 하루가 지났어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전국의 남편 여러분! 저처럼 개고생하지 마시고 아내 말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 연료를 가득 채우고 가슴에는 사랑도 가득 채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Letter 14

독립 만세!

김수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는 라디오를 즐겨 듣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TV보다는 라디오 듣는 게 더 좋은 30대 초보 자취생입니다. 항상 여성시대를 들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의 ‘첫 독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흔한 이사 한번 없이 유치원·초·중·고·대학교에 다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가 가까워서 등하교 시간이 짧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출퇴근에 1시간 30분을 쏟으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했을 무렵, 부모님께 처음 독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니가 혼자 나가서 밥을 해 먹겠나 빨래를 하겠나. 댔다마 치아라!” 평소 집안일을 하지 않는 제가 혼자 산다는 게 굉장히 무모하다고 하며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독립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자취하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보며 부러우면서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되고 예전과는 다르게 집안일도 맡아서 하고 요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자취하는 친구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혼자 살아볼 만하겠는데’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와 같은 부동산 이슈가 대두된 이 시기에 독립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 아니면 예전처럼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독립을 시도하며 처음과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먼저 집에서 습관처럼 “나 상반기에 독립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들은 채 만 채 하시다가 전세 자금 조달 계획과 원룸 오피스텔 방문 이야기를 하니 ‘애가 진짜 독립하려나 보네?’ 하는 생각에 엄마는 근처 부동산의 매물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저는 함께 봤던 첫 번째 집을 계약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형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에 크기도 적당하고 대중교통도 가까운 위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본가와 걸어서 10분이라는 점이 처음 딸을 독립시키는 부모님도 처음 혼자 살아보는 저도 서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살아서 부모님께 불안함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까이 살면서 혼자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이후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돌입하니 해야 할 일과 선택이 산더미였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 설치를 끝내고 본가에 있던 짐을 엄마와 하루에 조금씩 옮기고 입주 바로 직전에는 도시가스 연결, 공과금 명의 변경, 인터넷 설치 등 직장 생활과 병행하다 보니 광복절 공휴일에 맞춰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난스럽게 “대한 독립 만세! 나도 독립 만세!”를 외쳤더니 부모님은

“우리도 해방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하고 첫 주에는 거의 매일 저녁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니가 없으니까 빨래도 많이 없고 밥도 안 챙겨줘도 되고 역수로 편하다” 말하고, 이틀 뒤에는 아빠가 “딸이 없으니까 내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시는 겁니다. 두 분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화법으로 저를 혼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오시는 부모님이 귀찮아서 “이제 그만 온나! 이래 매일 올 거면 뭐 한다꼬 내보냈노!”라고 했지만 퇴근하고 저녁마다 종이 가방 가득 반찬, 채소, 과일을 싸 오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의 자유로움, 가끔 늦은 시간까지 OTT를 보는 즐거움,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집에 들어가며 느꼈던 외로움, 조용한 집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을 때의 무서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처럼 부모님 역시 처음 자식을 독립시키고 나니 자유로움과 외로움의 감정이 공존하는 거 같습니다.

어제도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은 1박 2일 출장 가고,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서 아무도 집에 없는데~ 딸 퇴근하고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

지금도 두 집에 왔다 갔다 하니 ‘아, 괜히 독립했다’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저도 처음 겪는 큰 변화에 점차 익숙해질 수 있는 적응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시대를 들고 계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집 너무 자주 오는 거 같아. 일주일에 딱 두 번만 방문해 줬으면 좋겠어. 한 번은 정 없으니까. 딸은 아직 어수선하고 서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해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Letter 15

불편한 가족

애청자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 되고 있다. 퇴근 후 일상복으로 후다닥 갈아입은 후, 주방으로 서둘러 들어간다. 밥을 짓고 아침에 미리 꺼내 해동시킨 닭을 씻어 닭볶음탕을 만든다. 한번 데쳐낸 닭에 갖은양념을 넣어 보글보글 끓이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감자볶음을 한다. 밥솥에선 찹쌀 소리를 내며 밥이 다 되어가고, 식탁을 닦고 수저와 젓가락을 놓고 물을 내놓고 반찬을 놓기 시작한다. 김치, 감자볶음, 멸치볶음, 오이지무침, 마지막으로 닭볶음탕을 가운데 올리고 각자 앞에 앞접시와 밥 한 공기씩을 놓는다.

“밥 먹자~.”

한 번의 부름에 대답이 없는 식구들. 각자의 방에서 뭐 그리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저녁 준비하는 동안 남편도 자식들도 도와주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예구, 내 팔자야~. 다시 한번 “밥 먹으라고~” 목



청것 소리치니 꾸역꾸역 모인다.

진수성찬은 아니라도 힘들게 준비했으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먹으면 덜 섭섭하련만, 아무 말 없이 TV와 휴대폰에 열중하며 먹는 등 마는 등 식사를 하고 있다. 잘못된 거 하나 없는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와 환한 웃음으로 “맛있어? 먹을 만해?” 하면서 식탁 분위기를 돋우려 묻고 또 묻는데 ‘그걸 왜 물어요?’ 하는 귀찮은 표정으로 “예...” 마지못해하는 대꾸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

아 불편해~. 허물없고 편해야 할 가족이 이리 불편해서야! 먹은 밥알이 곤두서며 체할 것 같은 기분이라 무심히 냉장고로 향한다. 냉장고 한편에 자리한 초록병을 잔에 한 잔 부어 들이켈다. 아~ 살 것 같다! 불편한 가족과의 식사 자리인데 초록이가 내 기분을 다독여 주는구나. 차마 입 밖으로 뱉을 순 없지만 ‘네가 가족보다 낫다!’ 하며 오늘 나는

한 잔의 알코올로 하루를 다독인다.

‘나야, 너 정말 고생했다. 오늘 하루 사느라 애썼다’

어찌 보면 이게 다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나온 결과인가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말 안 해도 알겠거니 묵인하고 지나간 일상들이 모이고 쌓여 지금의 가족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직장에서는 불편해도 참고 가급적 웃으며 생활하려 애쓰고 고운 말과 맑은 목소리로 얘기하려 하고 남의 마음 헤아려 다독여 주곤 하는데 현대 가족을 위해서는 어땠나 생각하게 된다.

한편으로 ‘다른 집들은?’ 하는 물음이 생긴다.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이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을까? 20년 넘게 맞벌이했는데 왜 나는 변변히 모아놓은 돈이 없고, 내 딸은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 살갑지도 않고,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일에 양말 한 짝, 감사의 편지 한 줄도 없이 넘어가는 걸까. 내 아들은 유학까지 보냈건만 변변한 직장도 없고 헤어날 방법이 까마득한 현재를 보내고 있을까? 왜 하필 지금 아들이 하고자 하는 영화 관련 일이 깊숙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나와 남편의 정년은 저벅저벅 다가오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불편한 가족을 만든 근원의 한 부분이지 싶다.

한편으로 위안을 한답시고 그래도 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도 행복이라고 스스로 다독이곤 한다. 그러나 잠시 위안은 될지언정, 나는 오늘도 불편한 가족을 어떻게 보듬고 살아 가야 할지 긴 고민에 빠진다. ‘같이’가 아닌 각자의 인생길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불편한 우리 가족.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과연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될까?

Letter 16

느리게 사는 행복

김영자 |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나는 조금은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대로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

운전면허증은 장롱면허라 형식 대기 중이고, 어딜 다닐 때는 기동력이 떨어지긴 해도 두 발 11호로 한 시간 거리는 걸어 다니는데 운동 개념으로 걷다 보니 힘든 줄 모른다.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끌고 가서 올 때는 무거운 짐을 버스에 맡기고 좌석에 앉으면 ‘1200원의 버스비가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하고 작은 행복을 느끼며 혼자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비록 혼자지만 집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맛술까지 담가 먹는다. 여태 상품화된 음식은 사 먹지 않았다. 직접 담그면 경제적이고 위생적이어서 부담 없고 개운한 게 좋다. 마트에서 포장된 김치 가격을 보면 ‘내 손으로 이 돈 들여 만들면 많은 양을 만들 텐데’ 싶어 포장 반

찬도 사본 적이 없다. 배달 음식 또한 그러하다. 집에서 만들면 인공조미료며 첨가물 없이 먹게 되고 이것이 건강의 척도라 생각하며 가공식품은 사 먹지 않는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서는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먹는다. 집에서 만들어 먹다 보니 이제 식당 음식이 입에 맞질 않는다. 자연의 맛에 익숙해져 인공조미료의 뒷맛이 개운하질 않은 것이다.

나는 도시 속에서도 반 자연인처럼 산다. 바다에 가서 철철이 미역, 여름엔 고동, 게, 청각 등을 찾아내고, 산이나 들로 다니면 내가 아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게 많다. 봄엔 들이나 산에 운동 삼아 다니면 나물이 흐드러지게 많다. 말리고 장아찌 담고, 약초는 철철이 채취해서 일 년 내내 물 끓여 먹으니 보약이나 다름없다. 여름엔 비 온 뒤엔 죽순이 우후죽순이고 버섯도 보이고 내가 알고 관심만 가지면 먹을거리가 지천이라 굳이 농약 묻은 야채들을 사기가 그렇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는 공산품이나 꼭 사야 할 것만 사고, 사시사철 냉장고는 배가 불러있고, 말린 나물이며 약초들은 줄을 서서 기다린다. 모두 하나 같이 손품과 발품으로 채취하고 장만한 것들이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요즘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나는 굳이 남들과 비교하며 바쁘고 편하게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항시 내가 가진 속에서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해하며 투박하게 살지만 잘못된 삶은 아닐 것이다. 매일 같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며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할 줄 아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다.

남과 비교하며 살면 자신한테는 맨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작은 하나에도 만족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비록 힘들 때도 있지만 비교하지 않고 사는 나 자신을 칭찬하며 한 템포 늦춰 사는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자연 속에서 행복을 자아내고 누리고 사는 지금이 편안하다.

이달의 손편지

어머니

신성만 | 충북 청주시

저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일어난
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입니다.

저는 아직도 7월 15일, 그날의 기억들이 머릿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비와 관련된 일을 하라보니
아침 일찍 제가 담당하는 현장확인을 위해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다 '아, 엄마
출근 중이지'라며, 들었던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네요.

점심을 먹고 동생 전화를 통해 어머니 전화가 꺼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 집과 가실만한 마트나 산책길을
찾아다녀봤지만 그 어디에도 어머니는 보이지할 않았습니다.
후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청하셨던 오송 지하철도 뉴스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경찰서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중자가 있다는 병원마다 전화를 걸었으나 어머니 이름의 환자는 있지 않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병원과 연락을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송 지하철도 차량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목격한 장면은 흉상물로 가득 차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철도였습니다. 그렇게 한시간 여가 지났을 때, 어머니 휴대폰이 '오송 지하철도'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아닐거야. 엄마한테서 곧 연락이 올거야'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쉽지 않았고, 밤을 지나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지하철도 반대쪽에 버스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반대 쪽으로 향했고 멀리서 빨간색 버스가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가 시작되었고, 누군가 버스 안에서 나와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신발을

볼 수 있었는데, 낯익은 신발이라 생각하면서도 '아일거
 야' 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구급차는 서둘러
 현장을 떠나려 했고, 저는 '누군지판 알려달라고' 애원하며
 구급차를 몸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누군지 확인만 시켜
 달라고 거듭 애원했지만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야 실종자 가족들은 하나하나씩 구급차 관계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계속
 아니라는 고개를 저었고, 저 역시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 그분의 표정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이구'라는 잔발마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엄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음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그날은 어머니께서 일을 다니신지 한달 된 날이었습니다.
 일하러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어머니께 '일 나가지 말고,
 엄마 건강 챙기는 걸 일로 생각하면 안돼?'라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많이 적적하셨던 모양이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 나가지 말라는 제 얘기를 듣지 않아

야속한 마음에 툭툭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1~2주에 한번씩 어머니 댁을 찾아가는데,
한동안 외러가질 않았습니다.

3주 정도 지났을까, 아내가 어머니 댁에 갔다오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영양제를
놓아두고 나하면서 통명스럽게 '이거 무릎에 좋은 거니까
바로 괜찮으면 또 챙겨들게'라고 말한게 어머니 얼굴을
보고 한 마디와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상을 치르고 어머니가 살던 집을 가보니, 제가
준 영양제를 챙겨서 드셨더라고요. 아들이 툭툭거려도
어머니 마음을 아들 걱정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며,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로 재어나서 너무 고맙고, 이제
나도 지형, 지민이에게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할게.

그리고 여기서 힘들고 슬펐던 일들은 잊고, 축하했던 일들만
생각하고 이곳에서 편히 보내. 많이, 진짜 많이 보고
싶을거야. 사랑해 엄마.



여성시대 사진방



[8091]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호박 가지 넣어 말립니다. 시골의 한가로운 일상~♡



[3903] 새벽 2시부터 투잡하며 막걸리 도매한 지 6년이네요. 새벽에 환경미화, 신문 배달, 택시 등 밤을 잊은 모든 분을 만납니다. 모두 힘내세요.



[4901] 가을이 익어가네요. 하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수확합니다.



[8091] 오늘도 돼지 아가들 만나러 출근합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해본 일이라 생소하지만 귀여운 돼지들 보면서 힘 납니다. 전 복권이 필요 없지요.



[9628] 여기는 부산 강동동 통발 만드는 곳입니다.



[6462] 새벽 7시에 나와서 밤새 떨어진 은행 청소 다 하고 마을 정자 청소도 다 했어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경기도 남양주시의

여성시대 가족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딸처럼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 딸
잘 부탁드릴게요.



두리번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엄마와 함께 서울에 올라와
하숙집을 구했다.



그게 하숙집 아줌마와의 첫 만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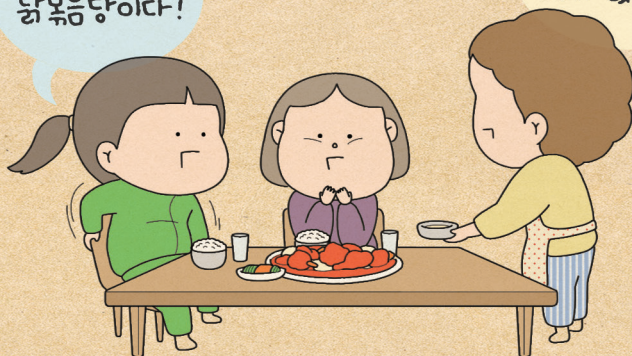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늘 기분 좋은 밥 냄새.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와!
닭볶음탕이다!

먹고 싶다며~
어서 앉아 먹자.



나의 향수병을 따뜻하게 다독여주었다.

그렇게 학교생활을 잘 하던 어느 날

집이 조금 힘들어져서요
우선 자취 집 구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자취 비만 내고
여기서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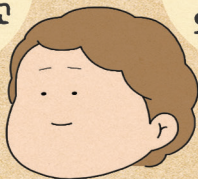
그건 죄송해서 안돼요.



파도 없는 바다 없듯이
굴곡 없는 인생도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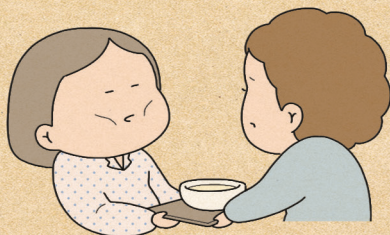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라고
하늘에서 시간을 준 거라고
생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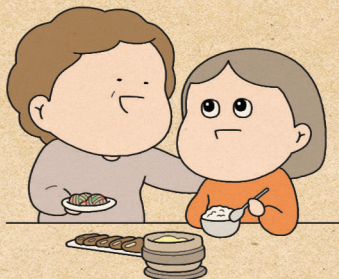
너 취업할 때까지
아줌마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이겨나가자.

그렇게 나는 그곳에서 무려 8년을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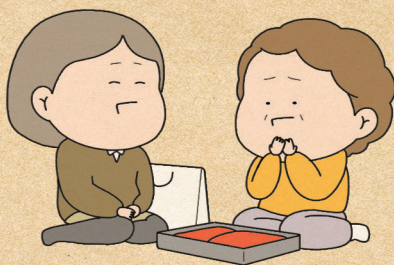


아플 땐 죽을 끓여 주시고

취업했을 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
죽하파티를 해주시던 아줌마.



첫 월급을 타던 날 선물을 사드리니
함박웃음을 지으시던 아줌마.



지금도 찾아가면 친정 엄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려주시는
내 삶의 뿌리와도 같은 고마운 존재이다.



맛있는 커피, 딜리코

IBK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거래고객

(주)딜리코 김서윤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대단하다. 그만큼 한국의 커피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딜리코는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에 발맞춰 비싼 유럽의 커피머신을 대체할 국내 커피머신 브랜드로 성장했다. '딜리셔스 커피'의 합성어 딜리코의 사명처럼 맛있는 커피를 제공한다.

딜리코는 국내 커피머신 브랜드이다. 커피 애호가인 김서윤 대표는 유럽산 커피머신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데다 고장이 나도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국내 브랜드의 커피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딜리코를 창업했다.

“2015년 창업해서 이제 9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창업할 당시에도 국내 브랜드의 커피머신이 있긴 했지만 식당에서 볼 수 있는 믹스커피

머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고 싶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딜리코의 첫 번째 제품은 한 번의 터치로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는 물론 라떼까지 모두 추출할 수 있는 ‘딜리코 프로바리스타 업소용 커피머신’이었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국내 브랜드의 커피머신을 낯설어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해 선택했고 사용해 보니 유럽산 제품 못지않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늘



었다. 게다가 AS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니 딜리코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특히 누가 내려도 일정하게 좋은 맛을 내기 때문에 식당이나 사무실 등 공용시설에서뿐 아니라 카페에서도 딜리코의 제품을 찾게 되었다. 당시 커피머신은 렌탈로만 이루어졌는데 딜리코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최초의 기업이었다.

딜리코는 창업 이후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성장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홈카페 열풍이 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홈카페 시장

이 성장할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홈카페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홈카페 시대를 예상하고 개발해 온 제품들이 코로나로 인해 판매량이 급등했고 회사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딜리코는 성장한 만큼 사회에 환원하며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랑의열매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이주여성도 커피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



회에 환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김서윤 대표는 단순히 커피 머신 제조·판매에서 벗어나 원두 수입과 로스팅, 쇼룸 운영까지 커피 산업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IBK기업은행의 도움을 받아 사육을 이 전했다.

“제가 혼자 사업을 시작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는데 IBK기업은행이 자금을 대한 도움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

다. 특히 이번에 제가 머신을 사기 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과 바리스타 교육, 카페 창업 전 컨설팅 등 다 각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는데 IBK기업은행의 도움 덕분에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서윤 대표의 이야기를 들은 IBK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이철우 지점장은 “현재 저희 지점에서도 달리고 머신을 쓰고 있는데 제품력은 보장할 수 있다”며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응원을 해주었고 “앞으로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IBK기업은행도 그것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중국 온라인몰 입점을 앞둔 딜리코가 커피의 본거지 유럽까지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IBK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이철우 지점장(왼쪽)과 (주)딜리코 김서윤 대표

! (주)딜리코 김서윤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좋아하는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하라.
2. 온라인 시장을 두드려라.
3.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

(주)딜리코

대표 김서윤
전화 1522-7517

주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211
홈페이지 <https://delico-coffee.shop/>



침구계의 국민 브랜드를 꿈꾸다

IBK기업은행 평촌기업스마트지점 거래고객

(주)새날 조운섭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새날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대부분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친근한 침구 브랜드다. 20여년간 TV홈쇼핑을 통해 꾸준히 사랑받으며 판매된 새날은 전 세대에서 사랑받는 국민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날은 침구 제조 및 판매 기업이 다. 현재 다양한 소재별, 계절별 침구를 개발하여 제조·유통하고 있다. 조운섭 대표는 지난 2003년 아내, 직원 한 명과 함께 평촌의 작은 사무실에서 새날을 창업했다. 새날을 창업하기 전 친구와 동업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유통한 경험을 살려 특징 아이템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새날의 첫 상품은 패치워크 이불이었다. 서양에서 할머니들이 손녀

들이 결혼할 때 조각조각 손수 바느질해서 정성스럽게 이불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고 모티브를 얻어 에어룸(HEIRLOOM; 가보)이라는 브랜드로 '정성이 가득한 이불로 온 국민의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꿈을 가지고 조각조각 패치워크 한 첫 상품으로 홈쇼핑의 문을 두드렸다.

직접 여러 공장을 오가며 상품을 개발했고 MD들을 찾아다니며 이불을 소개했고 홈쇼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조각의 패치워크 디자인이



라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첫 상품부터 지금까지 새 낱은 디자인의 특화에 중점을 두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홈쇼핑을 보는 고객들은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끊임없는 상품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해마다 침구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 차별성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특화된 상품 개발과 디자인으로 침구 특성상 받기 어려운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하였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겨울 및 여름철 토퍼(Topper)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가발

열 기능의 열 전도성이 뛰어난 ‘파이론솜’을 개발하여 자가발열 극세사 침구를, 여름에는 북극의 서늘함이 느껴지도록 ‘북극 냉감 메쉬토퍼’를 개발·특허 내어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알레르기 고통받는 딸을 보고 좀 더 쾌적한 수면을 위한 진드기 방지가 되는 마이크로하바 원단을 개발 ‘알러셀(ALLECELL)’ 브랜드로 상품을 출시하고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첫 사업을 시작했던 그 각오와 경험을 살려서 새날만의 디자인 특화 상품을 개발했다. 일명 ‘드레스 이불’로 마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자태를 침구로 표현



에어룸 드레스 셔링 이불



에어룸 꿀잠 극세사 자기발열 이불

해 보았고 인증받은 무농약 순면 오가닉 원단만으로 제작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다.

홈쇼핑 판매의 특성상 모든 상품은 인증을 다 받아야 한다. 때문에 모든 상품을 자식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는 새날이라는 회사명보다 브랜드 '에어룸'과 '알러셀'로 홈쇼핑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TV홈쇼핑에서는 믿고 사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벌써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이한 새날은 직원 20여 명에 매출 규모가 30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조운섭 대표는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성장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준 직원들, 거래처, 협력 공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그 어렵다는 홈쇼핑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한 결과입니다."



또한 조운섭 대표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인테리어 및 리빙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젊은 세대들을 위해 홈쇼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온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인터넷 사업도 확장 중입니다. 홈쇼핑의 신화를 이뤄냈듯이 인터넷의 신화도 이루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집중하겠습니다”

다”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IBK기업은행 평촌기업스마트지점 신민하 지점장은 “새날은 TV홈쇼핑을 시작하며 저희 IBK기업은행과 거래를 하였고 20여년간 함께 성장해 왔다”며 “이번 여성시대 소개 기회를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그 꿈 이루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평촌기업스마트지점 신민하 지점장(왼쪽)과 (주)새날 조운섭 대표

! (주)새날 조운섭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고객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라.
2. 상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마라.
3. 시대 변화에 따라 유통 방식을 변화하라.

(주)새날 에어룸·알러셀

대표 조운섭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109
전화 031-425-4763 홈페이지 <https://www.heirloom.co.kr/>

코너 속 편지

주말엔 투유

- 81 모카 케이크에게
- 84 현주에게
- 86 나의 오래된 평생 짝꿍
- 88 며느라기야, 복직 축하한다
- 90 내 반쪽에게
- 92 고마워 백설아
- 94 건·담이에게
- 96 뒤늦은 깨달음
- 99 부치지 못하는 편지
- 103 곧 태어날 까꿍이에게
- 105 엄지야, 미안해
- 107 아빠는 요리사



주말엔 투유

모카 케이크에게

김소용 | 경기도 파주시

안녕, 모카 케이크야!

올해도 나는 너를 만날 생각하면 행복해져. 너를 처음 만난 그날, 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 너의 모카 향을 가득 느꼈던 그날은 바로 15년 전 나의 생일이었어. 내 생일은 음력으로 8월 14일, 추석 하루 전날이라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어.

특히 2년 전 하늘로 소풍 가신 우리 아빠, 큰집 삼촌 두 분은 경상도 분들이라서 그런지 제사 음식을 워낙 좋아하셨거든. 그래서 명절이면 꼭 우리 집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지.

내 생일 날, 난 여동생이랑 엄마한테 붙들려서 제사 음식을 함께 준비해야 했어. 엄마가 갈비, 떡갈비, 식혜, 수정과, 나박물김치, 삼색나물을 준비하시면 동생이 잡채, 내가 모듬전과 떡국을 담당했어.

그때마다 아빠는 혼자 신나서 “제사 음식이랑 사람 음식 따로 해라

잉~”라고 외치셨고 그러면 참다못한 동생이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 우리 삼 남매는 제사 없는 집으로 시집 장가갈 거구먼! 오빠 여자친구는 모태신앙이라 교회 다니지, 내 남자친구는 할머니부터 천주교라 성당 다니지, 소용 언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결혼할 거다”하며 총대 메고 아빠에게 대들기도 했지. 그러면 고집 센 우리 아빠는 “시키는 대로 해라 고마~ 우리 집에 어른들 다 오시는데 식사라도 한 끼 정성스럽게 대접해야지. 제사 없다고 어른들 음식 대접도 안 하나. 네가 결혼하거든 아들이건 딸이건 너처럼 키워.”

아빠께선 쉽게 말씀하셨지만 제사 음식 구분해 두고 삼촌들 오시면 바빠지는 건 늘 내 몫이었어. 식사, 술상, 과일, 디저트, 설거지까지 모두 내가 해야 할 일이었지.

그러다 어느 날은 외출 나갔던 남동생이 집에 오다가 교회 친구들이 왔으며 모카 케이크를 나한테 건네주더라. 그렇게 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두고선 다른 방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큰집 작은오빠가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

“어른들이 드시고 계신 케이크 저거 네 거 아니냐?”

뒤늦게 작은오빠가 가리킨 곳을 바라봤지만 넌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어.

내가 황당해하니 큰집 오빠들이 대신 나서주었지.

“아빠, 이걸 좀 아니잖아요. 오늘 큰 조카 생일인 건 알고 계십니까? 조카 얼굴 한 번 보세요. 생일인데 종일 음식 만들고 고생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드신 케이크랑 커피 다 친구들이 준 선물인데 빈 상자만 남겨두면 우째요”라고 하니, 어른들은 급히 밤늦게 술 먹으러 나간 우리 집 막내 여동생을 찾더라. 추석 당일 아침에 들어온 동생을 보고 어른들께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명절 문화 참 좋다”라고 하시더라. 여



기에 우리 아빠 덧붙이신 말씀.

“이 집 사람들 아침밥도 안 먹나. 어른들 배고프시겠구먼. 빨리 양푼에 제사 음식 모으고 사람 밥 차리고마.”

그러면 난 또 분주히 엄마를 도와 음식을 준비해야 했지.

지금도 내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은 1도 없어. 가족 모두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내가 기억해 주니까 그 걸로 됐어. 나의 인생 케이크가 된 모카 케이크야. 나는 올해도 너를 만날 거야. 내가 나에게 너를 선물로 줄 거거든. 올해도 내년에도 나의 생일날에 만나자.

주말엔 투유

현주에게

김성필 | 경기도 군포시

새아가, 현주야.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 소중한 것 하나가 결혼이라고 생각해 보렴. 남남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의 믿음과 이해가 없으면 동반자가 될 수 없단다. 현주가 우리 가정의 일원, 식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도 오늘 다시 생각해 봤어. 가정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평생 함께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다.

흔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들 하잖니. 우리 현주가 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아빠는 굳게 믿는다. 현주야, 무슨 일이든 부부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나중에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후회할 때도 있단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 각자가 해야 할 일, 역할 분배 등 작은 일부터 천천히 배우며 서로를 알아가는 게 인생이지.

또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뜻대로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때론



어려운 시련, 커다란 파도를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는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니? 자, 이제 인연이란 굴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 보렴.

행복이 있고 낭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기가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음악이 있는 세상에서 말아야.

그리고 그 너머 세상밖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단다. 이렇게 희망찬 세상을 내 아들 우람이와 함께 살아가 보렴.

현주야 사랑하고 결혼 축하한다.

- 너희들의 가족, 아빠가.

주말엔 투유

나의 오래된 평생 짝꿍

김병천 | 충남 아산시

사랑하는 짝꿍아!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이었지. 6학년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네가 내 짝꿍이어서 정말 설레고 좋았어. 너에게 잘 보이려고 엄마한테 졸라서 노트도 새로 사고 연필도 새로 샀던 기억이 나. 그런 너와 평생 짝꿍이 돼서 잘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동안 우리 참 힘든 일도 많았지. 우리 부모님이 널 반대해서 3년 넘게 결혼 허락을 기다리는 일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어. 당신은 그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이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귀한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솔직히 정말 막막했어. 우리 아이는 모든 게 느리고 청각 시각 후각 미각 모든 감각이 예민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했지. 언어도 너무 느려서 소통이 안 되니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아이 때문에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니까 우리도 다르게 키우자고 힘을 더 내자던 짝꿍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 같아.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당신이 있고 당신에겐 내가 있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바라는 건 우리 가족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의 오래된 평생 짝꿍!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말엔 투유

며늘아기야, 복직 축하한다

한천만 | 경기도 안양시

사랑하는 며느리, 지현아!

네가 벌써 복직할 때가 되었구나. 아직 어린 수연이를 두고 출근해야 하는 너의 그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아버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프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교육 현장 관련해서 말이 좀 많지 않니. 그런 곳에 지현이 너를 보내야 한다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해. 그러면서도 너에게 큰 도움 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다. 우리가 가게 일 때문에 수연이를 돌봐주지 못한 것도 정말 미안하구나. 하는 수 없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 친정엄마에게 수연이를 부탁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

학교 아이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고 네가 말 한 적 있지? 그렇게 힘든데도 엄마 아버지 힘내라고 수연이 영상전화 꼬박꼬박 걸어줘서 고맙다. 얼마 전에는 네가

가족 특방에 동영상 하나를 올렸더구나. 출근하는 지현이 너를 배운 해 주는 수연이의 모습, 작은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고 서 있는데 까딱하면 눈물을 쏟을 뻔했단다. 바쁜 엄마 입장까지 생각해 주는 아기 수연이가 안타까우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옮겼을 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

무엇보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가게 일에 매달리다 보니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해 너희 신랑도 일찍 철이 들었지. 그런 것까지 생각이나서 더 마음이 아렸다. 너에게 전화로는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라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어디 이 엄마 아버지 마음까지 그랬겠냐!

모든 게 다 예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더 예쁜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지현아! 네가 전화로 그랬지? “그래도 돌아갈 일터가 있어서 참 좋아요. 아버님!”이라고 말이야.

일도 좋지만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버지가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 엄마의 건강이 집안의 건강이고 엄마가 건강해야 신랑도 아이들도 더불어 건강하다는 말! 절대 잊지 말거라. 이제 밤은 물론이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차가운데 옷 잘 챙겨 입고 출근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지현아! 너의 그 환한 미소와 함께 앞서서 현관문을 열고 뛰어올 수연이를 생각하니 벌써 이 아버지하고 엄마는 설레는구나. 너의 듬직한 신랑 ‘한신’ 군은 뒤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서 있겠지. 요즘 운동해서 좀 생겼다는 어깨 근육을 으쓱대면서 말이야. 올 사랑하는 며느리 지현아! 우리 그날 보자. 만날 하는 영상 만남 말고 오픈 만남으로 만나 보자. 하트 꼭 채운 표정 날리면서 가벼운 포옹은 뭐 조금 더 생각해 보자.

- 사랑하는 올 큰며느리 지현이에게, 아버지가.

주말엔 투유

내 반쪽에게

박상현 | 광주광역시 광산구

4년 전, 언제나 밝던 당신이 어두운 얼굴로 가족회의를 열자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네. 30년을 함께했지만 당신의 그 표정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 혹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인가 생각하며 당신이 말할 때까지 난 기다렸어.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이 꺼낸 이야기를 듣고 난 순간 내 귀를 의심했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아들의 우는 얼굴을 보고 난 후, 그제야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된 당신의 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동안 큰 증상은 없었지만 자주 어지럽고 쉽게 멍이 들고 생리혈이 많아졌다고도 했지.

2017년 내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을 때, 당신은 17년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내 옆을 지켰는데. 그때 당신은 음식을 먹고 토하는 나를 위해 6~7번의 식사와 간식을 만들고 위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

과 운동법, 병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표를 짜서 함께 생활하며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

그런데 당신은 ‘백혈병’이란 날벼락 같은 소식에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위로하며 당차게 치료를 받았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야”라며 갖은 병원 검사와 지독한 항암 치료까지 당신은 잘 이겨냈고, 병실 식구들 모두 힘들어하는 식사 시간에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잘 해내 주었지.

해외에서 들여와서 조혈모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늘에게 모든 걸 맡긴다며 담담해하던 당신. 그때 난 차라리 내가 당신 대신 죽었으면 했는데 말이야. 다행히 하나뿐인 아들에게 조혈모 이식을 받아 당신이 다시 생을 되찾았을 때, 이 세상 전부를 선물로 받은 것 같았어.

2023년 6월, 당신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서 입원아동보호사가 되기 위해 아이 돌봄 수업을 등록했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 읽기, 구연동화, 아동 심리 등 8주 교육을 이수하고 내게 자격증을 내밀었을 때는 당신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장하든지!

이제 나도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당신도 조혈모 이식한 지 3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가족 셋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 당신에게 처음 써 보는 편지에 감사함을 담아 당신께 전해.

여보! 오늘도 내일도 지금처럼 33년을 함께한 날보다 더 나은 내일을 꼭 함께하고 싶소. 장하고 고맙고 하늘만큼 땅만큼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추신] 당당히 모든 일에 잘 대응하는 내 반쪽에게 끝까지 투병해서 이겨내길 바라며 못한 반쪽이 응원합니다.

주말엔 투유

고마워 백설아

김은숙 | 서울 강남구

백설아, 네가 우리 집에 온지도 벌써 4달이 지났네.

사실 나는 너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 않았어. 털 날리는 것도 불편하고 고양이들의 그 눈빛이 조금 무서웠거든. 작은 딸이 고양이 임시보호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 그런데 너를 본 이후로부터 내 생각은 180도 변했지. 난 네가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인 줄 알았어. 우리 가족을 처음 만나는 건데 어쩔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던지...

네가 아기 고양이가 아니라서 한 번 입양됐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들었어.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넌 항상 밝고 천진난만했지. 너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니 내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가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네가 떠나면 내가 너무 허전하고 쓸쓸할 것 같아. 그때



서 딸에게 전화가 올 때면 혹시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전화한 걸까 걱정이 되더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회의를 열었지.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후부터는 마음이 편해졌어.

사람들이 왜 집사가 되려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너는 정말 너무 특별한 가족이고 좋은 친구야. 네 덕분에 가족들 모두 웃는 일이 정말 많아졌단다. 주말에 다 같이 집에 모여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어.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너.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단다.

백설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보자. 네가 우리 집에 온건 정말 큰 행운이야. 고마워 백설아!

주말엔 투유

건·담이에게

김미자 | 경기도 부천시

안녕, 건·담아!

애완동물만 보면 항상 겁을 내던 나였는데 너희와 함께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네. 아들 내외가 처음 너희를 데려왔을 땐, 솔직히 반기지 않았던 게 사실이야.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얼마나 애지중지 보살폈니. 아들은 아직 아기인 너희가 음식을 토하기라도 하면 온종일 좌불안석이고 출근은 해야 하니까 아빠에게 집에 와서 너희를 봐달라고 부탁했지. 남편은 “지극정성이다~”라며 구시렁대면서도 아들 말대로 종일 너희를 지켜주었어. 그 모습을 보고 난 아들에게 한마디 했지. “부모가 아파도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아들이 어디를 놀러 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본의 아니게 너희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돌봐줘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이 점점 쌓이다 보니 건·담이와도 서로의 곁을 내어주게 되었지.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건·담이 너희부터 안아주는 아들을 보면서 외아들로 자라서 정을 더 주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 너희가 어쩌다 물을 쏟거나 사고를 칠 때면 내가 “저놈의 시끼가!”라며 화를 낼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엄마, 시끼가 뭐야. 우리 애들한테!”라며 너희 편을 들더라.

이럴 땐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겠어. 사실 난 너희가 우리 집에 다녀갈 때면 여기저기서 털이 묻어 나오는 게 싫었거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애들이 털 빠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귀엽기만 한데 왜 그래”라고 반박하니 그저 내가 참아야지 뭐. 나도 이제 점점 건·담이 너희들이 예뻐 보이는구나. 아기인 손녀와도 같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건이와 담이 너희도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우리 가족이야. 아직 안아주는 것까진 못하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더 가까워지겠지. 앞으로로도 건강해라.

주말엔 투유

뒤늦은 깨달음

김도현 |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제! 난 오늘 공연장에서 부를 ‘애모의 노래’를 연습하면서 자네의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움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네. 친구 간에 나이를 따지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도 깨달았지.

자네는 이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술 한잔 들어가면 항상 내게 불러달라고 했지. 자네와 난 회사 동료이자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어. 자네는 나보다 세 살이 어렸고 나를 부를 때면 형, 때론 김 형이라고 했지. 그런 자네를 난 친구 겸 동생처럼 여겼다네. 특히 성악도였던 나와 지독한 음치인 자네가 만난 것도 술고래인 나와 술을 잘하지 못하는 자네가 만난 것도 정말 신기한 인연일세. 그야말로 최상의 궁합이지.

가리봉역 공터에 있는 단골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게 되면 우린 독길을 따라 신도림역까지 걸어가면서 자네의 애창곡 ‘애모의 노래’를 고래고래 소리치며 불렀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른다~”

아내가 들으면 실망하겠지만 그때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힘이 넘치던 시간이었던 생각이 들어. 그런 시절도 잠시, 자네 작은 오퍼상을 차려서 사장님이 되었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만남은 줄어들었고 대신 종종 통화를 하곤 했어.

광제! 그날도 온종일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자네가 그리워지더군. 한동안 자네한테 소식이 없었지.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그때 마침 전화벨 소리가 울렸지.

“누구십니까? 광제? 광제냐?”

텔레파시가 통한 것일까? 바로 자네의 목소리였어. 어찌나 반가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어이, 어이, 김 과장, 나야 나!”

난 내 귀를 의심하면서 더듬거리며 다시 물었지.

“광제, 광제라고?”

자네는 나한테 반말하던 친구가 아니었잖아. 예의를 지키는 친구였지.

“응! 그래, 나 광제라니까! 김 과장! 내 목소리 벌써 잊었나?”

마치 사장이 부하한테 말하는 것처럼 자네는 얘기했지. 난 자네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서 정중하게 한마디 하곤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

“그래요? 다음에 통화합시다!”

난 갑자기 반말하면서 김 과장~ 김 과장~ 거리는 자네를 선뜻 포용할 수가 없었네. 그때 자네가 참으로 쾌심했어. ‘사장 됐다고 날 우습게 보나?’란 생각도 했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

며칠 후 자네의 친구, 경리과 이 대리가 날 찾더군. 이 대리 말은 꽤 심각했는데 난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어. 광제가 간경화증 말기라 며칠 못 살 것 같다고,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 6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면서 병이 생겼다는 거야. 배는 복수가 차올라 맹꽂이배를 하고 얼굴은 완전히 새까맣다고 했지. 그리고 노래방에서 내가 보고 싶다면 서 ‘에모의 노래’를 부르던 중에 막 울었다고도 했어.

광제! 난 그래도 자네가 오래 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며칠 후 자네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만 했지. 난 자네의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어. 눈코 뜰 새 없는 업무 때문에 충청도 고향에서 치르는 자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

광제! 나이 칠십이 넘으니 이제야 보이는군. 친구 간에 나이를 따지는 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자넨 나에게 깨달음을 선사하고 하늘로 갔어. 내가 갔을 때, 그곳에선 자네가 형이 되겠군. 그럼, 우리 이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세.

주말엔 투유

부치지 못하는 편지

애청자

보고 싶은 엄마.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초등학교 다닐 나이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새 외할머니랑 사시면서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만 하셨다고,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모에게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와 결혼해 살면서는 시댁 어른들로부터 혹독한 시집살이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설움을 받으며 사신 불쌍한 나의 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 나의 오빠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가슴에 큰 못 하나 박고 한평생을 사셨지요. 만이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보겠다는 신념으로 제 동생을 임신하셨지만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먼저 보내야 했던 기막힌 상황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어요? 그 아픔을 차마 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행여나 제가 말하면 그때 일이 생각나 엄마를 더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엄마의 한 맺힌 아픔을 알아드리면서 엄마를 보듬어드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칠순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 잔칫상을 받은 아버지는 식사 후 약을 드시고는 그대로 쓰러지셨지요.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셨던 날, 엄마가 서럽게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죽음은 엄마에게 큰 충격이셨겠죠.

저희 아버지, 무뚝뚝하기로 소문나신 분이셨지만 엄마에 대한 사랑만큼은 컸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60년대 시골에서 아들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기어코 아들을 낳는 집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어떤 일도 선택하지 않으셨지요. 아들 셋이나 있는 작은 집 큰오빠를 양자 삼으라고 조부모님이 말씀하셨지만 끝내 양자를 들이지 않으시고, 아들이 아니면 호적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던 시절에도 딸들을 호적에 올려주신 아버지. 지나고 보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것이 엄마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 같아요. 엄마도 그 점에 대해선 감사하셨지요.

제가 이번에 공저를 출간하면서 유난히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계셨더라면 “우리 딸 작가가 되었네”라고 하면서 좋아하셨을 텐데….

방학하여 시골에서 엄마랑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던 어느 날, 엄마가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랑 병원에 다닐 때 엄마가 직접 표를 발권하셨는데 그럼 그때 글을 어떻게 읽으셨냐고 여쭙보았더니 글자를 모양으로 인식해서 알았다고 하셨지요.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한 번만 물어도 되는데 엄마로서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날 바로 저는 엄마의 선생님이 되어 한글을 가르쳐 드렸지요. 그 때 무언갈 배우는 엄마의 눈빛은 태양보다 밝고 달빛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가 가 거 겨…’ 삼시간에 한글을 깨치고 며칠 되지 않아 두꺼운 성경책을 펴서 소리를 내 읽으며 좋아하시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좀 더 빨리 가르쳐 드렸다면 엄마의 불편함이 한결 줄어들었을 텐데 죄송했어요.

그리운 엄마, 후회되고 죄송한 일이 또 있어요. 직장 다니는 저를 위해 시골 생활을 뒤로하고 손주 둘 다 각각 만 2년씩 살뜰히 키워주셨

지요. 그 덕분에 아이들 모두 의젓한 성인으로 자랐어요. 벌써 둘째가 장가를 가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답니다. 세월 빠르지요? 아이들 돌봐주실 때 용돈 넉넉히 드리지 못했던 거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저리도록 보고 싶은 엄마. 10년 전 언니의 전화를 받고 대구로 달려갔을 때, 눈 깜박일 힘조차 없어 보이는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엄마와 이별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했어요. 제가 울면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할까 봐 애써 태연한 척했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녘에 꿈을 꾸었고 꿈에서 제가 엄마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넘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엄마 소식이라는 것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난 잠잘 때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라고요. 엄마 기도는 이루어졌지만 자식인 저는 엄마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해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입관식 때 마주한 엄마의 표정은 평온함 그 자체였고요. 죽음을 초연한 자세로 받아들이시며 82세로 일생을 숭고하게 마감한 엄마가 위대해 보였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를 낳아서 정성껏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아갈게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추신] 전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께 부치지 못하는 편지이지만 언젠가는 여성시대에 꼭 투고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벌써 10년이 지나 버렸네요. 처음으로 방송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용기를 내 편지를 등록해 보았습니다.

주말엔 투유

곧 태어날 까꿍이에게

서지영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까꿍아~ 안녕!

올해가 가기 전에 널 만날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하단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마 널 만날 수 있겠지. 너보다 21개월 먼저 태어난 누나도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네가 태어나면 네 누나가 좀 힘들게 할지도 몰라. 누나 기에 눌러서 생활하면 안 된다. 씹씹하게 자라렴. 네 누나는 고집도 세고 천방지축이지만 한 번 가르쳐준 건 잘 따라 하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야. 그래서 벌써 엄마 배를 보면서 아가라고 뽀뽀도 해주고 너를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까꿍이, 네가 태어나면 제일 행복해할 사람은 바로 아빠란다. 왜인지 너도 궁금하지? 네 아빠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랑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던 추억이 참 많았다. 그래서 네 아빠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첫째가 딸이라 못내 아쉬웠나 봐. 다행히 둘째인 네가 아

들이라서 아빠의 로망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하고 있단다.

네가 이 말을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사실 친할머니는 네가 딸이길 바랐어. 딸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한다면서 말이야. 외동아들만 키워보신 네 할머니가 네 누나를 보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네 누나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책, 그리고 옷이며 신발까지 다 사주셨지. 너무 감사하단다.

너도 태어나면 친할아버지가 많은 것을 챙겨 주실 거야. 겉으로 내색은 잘 안 하시지만 대를 이을 핏줄이 생겼다고 요즘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시거든. 까꿍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렴.

물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더 좋아하시지. 네 누나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키우셨는데 너도 아마 두 분이 사랑으로 돌봐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까꿍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요즘 엄마가 자려고 하면 잠 못 자게 발로 많이 차더라. 엄마도 종일 네 누나와 놀아 주느라 너무 힘들다. 엄마 좀 편히 쉴 수 있게 밤에는 놀아 달라고 하지 말아줘. 알았지? 될 수 있으면 낮에 놀아 달라고 하렴.

그럼, 우리 크리스마스 무렵에 만나자! 그때까지 우리 잘 지내보는 거야. 사랑해 까꿍아~.

주말엔 투유

엄지야, 미안해

김응숙 | 경북 영천시

엄지야, 안녕.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니. 그런데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고 살았어. 얼마 전, 청소를 하다가 발을 헛디뎈 너 어지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지. 넘어질 때 땅을 잘못 짚었는지, 인대를 다쳐서 너를 아프게 했네.

처음 3주 동안은 매일 병원에 다니며 주사 맞고 치료도 했는데 나는 아직도 두 달째 반 깁스를 하고 있단다.

모든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내가 살림도 못 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어. 왼손으로 숟가락 젓가락질하려니 까 밥 먹는 것조차 어려워지더구나. 새삼 너의 존재를 다시 한번 크게 느낀다.

신체 중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너. 너를 내 몸의 일

부라 생각하고 그냥 무심히 대했는데 이번에 네가 아파지고 보니 확실히 깨달았어. 내 소중한 엄지손가락아!

그동안 내가 64년을 살면서 너의 소중한함과 고마움을 몰랐구나. 네가 아프니까 뚜껑 하나 못 열겠더라. 그동안 내가 쉽게 혼자서 능히 할 수 있었던 일조차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니 또다시 너의 소중한함을 깨닫는다.

내 몸 한 곳 소중하지 않은 데가 없고 귀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말이야. 하다못해 머리카락 한 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머리카락이 없다면 가발을 쓰고 다녀야 할 테고, 만약 손톱 발톱이 없다면 얼마나 또 불편할까.

아직도 봉대 속에 갇혀있는 내 오른손 엄지손가락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면 하루라도 빨리 너를 낮게 해줄게.

다 나으면 너를 지금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줄 거야. 너로 인해서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깨달았어. 정말 고맙구나.

그러니까 그만 아프고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나 좀 도와주렴. 우리 앞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너를 잘못 다뤄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사랑해!



아빠는 요리사!

© 여성시대 가족이 보내주신 요리법입니다

라이스페이퍼 치킨 찝먹

- 냉동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해동시켜 먹기 좋게 깍둑썰기 하주세요.
- 라이스페이퍼 5장을 반으로 잘라 따뜻한 물 묻혀 부드럽게 만드세요. 이 라이스페이퍼를 넓게 펼친 후, 닭고기를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 프라이팬에 식용유 3큰술 두르고, 라이스페이퍼로 싰 치킨을 뒤집어 가며 노릇노릇 익혀서 잠시 두세요.
- 파나 양배추를 채썰어 씻어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합니다.

- 양념치킨 소스는 고추장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맛술 1큰술, 간장 반 큰술, 케첩 1큰술을 팬에 붓고 1분 끓여 만듭니다.
- 접시에 파나 양배추 채를 깔고, 그 위에 튀긴 라이스페이퍼 치킨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든 소스에 찍먹 하세요.

팬이버섯 튀김 찍먹

- 팬이버섯을 열 가닥씩 김이나 깻잎을 끈 삼아 묶어주세요. 김이나 깻잎을 길게 잘라 감는 겁니다. 팬이버섯 아랫부분을 묶으니 펼치면 부채처럼 될 수 있습니다.
- 팬이버섯 묶음을 튀김가루에 묻히고, 튀김가루 반죽에 다시 넣은 후 건져 튀겨주세요.
- 간장과 식초, 설탕을 넣은 초간장을 만드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첩도 좋아요.
- 팬이버섯 튀김을 초간장이나 토마토케첩에 찍먹! 버섯 싫어하는 우리 아이도 뭔지 모르고 깜빡 속고 잘 먹어요. 모양도 고급지답니다.
- 아빠가 찍먹할 간장에는 매운 고추 좀 썰어 넣어 주세요.

참치 밥전

‘아빠는 요리사’에서 배운 참치야채밥전을 비 오는 날 해 먹었어요. 저는 소개해 주신 기본 외에 땡초 넣은 매운맛과 남편이 좋아하는 방아잎 넣은, 모두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와사비와 홀스래디쉬에 찍어 파김치 곁들여 남편이랑 막걸리 한잔했는데 의외로 방아잎 넣은 전이 향이 풍기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만들기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파채

우리 집은 삼겹살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에 빠질 수 없는 파채를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시던 오리지널 그 맛 그대로 한답니다.

- [재료] 대파 3개, 소금 반 큰술, 고춧가루 2큰술
- 대파는 어슷썰기로 돌려가면서 썰어주면 좋고요.
- 거기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고 휘적휘적 저어주면 끝.
- 이 정도 넣고 맛이 있을까 싶지만 저희 애들 말을 빌리면 식당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 쉽고 간단한 파채 만들어 삼겹살과 함께 드셔보세요. 남은 것은 보관했다가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습니니다.

고구마 인절미

- 고구마를 삶아서 부드럽게 될 때까지 충분히 으깨세요.
- 물에 적신 라이스페이퍼에 고구마 으깬 걸 올려서 말아주고, 콩가루나 미숫가루를 뿌린 접시에 고구마를 굴려 골고루 가루가 잘 묻게 해줍니다. 한입에 먹기 좋게 잘라 주면 끝!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할 고구마 인절미, 진짜 맛있어요.



숨속 걷기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10월 초부터 나는 달렸다. 오늘까지도 계속 일정표가 쉼 없이 이어져 숨이 턱까지 찬다. 오케스트라와 첫 협연이라 연습, 우리 연주팀과 오랜만의 공연이라 또 연습, 공연장에 일찍 대기하고 또 리허설, 리허설...

10월의 첫 주는 정선 가리왕산에서, 세 번째 주에는 화요일에 광주 예술의 전당, 금요일엔 창원 MBC 경남홀, 그리고 주말엔 한계령에서 한계령 노래비 제막식에 이어,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그야말로 만 4년 만에 내 콘서트를 제대로 했다.

사실 공연은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동시간이다. 차를 타고 가도 왕복 8~9시간, KTX 타도 왕복 7시간, 강원도 길은 늘 새벽에 떠나는데 도착까지 5시간가량 걸리고 오는 길도 주말이라 장난이 아니었다. 매니저 황 실장은 졸음 때문에 아예 저녁은 굶는다. 여성시대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동선이 정선 - 전라도 광주 - 경남 창원 - 한계령 - 인제까지. 나이 칠십 넘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강행군이었다.

공연이 없던 날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젠 쉬엄쉬엄해라. 좀 쉬어도 되지 않니?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다니니?”

10월 한 달 내내 바빴지. 아침 방송 매일 하고, 월요일에 생활의 달인 더빙하고, 한 달에 두 번 화요일마다 채널에이 텔레비전 <28청춘> 녹화하고.

“그렇게 많은 일정은 아니에요. 난 쉬면 아플 것 같아. 늘어지고 우울할 것 같아.”

나의 대답이다.

그 사이 일정이 없는 날 <그럴 수 있어> 디자인팀과 편집팀을 불러 모아 6명의 젊은이와 점심을 먹었다. 그중 결혼한 사람은 딱 한 명! 40대 애기들이 내 눈엔 자유로워 보였고, 반려묘·반려견들과 함께 살아 반려동물 애기가 끊이질 않는다. 자취, 독거하는 애기들에게 고기와 장어를 사준다고 하니 너무 좋아했다.

“사십이 넘었는데 무슨 애기예요?”

“내 눈엔 다 애기자~. 잘 먹으니 너무 보기 좋다.”

밥 사준 보람이 있게 싹 다 먹은 물장수 상이었다.

독일서 친구가 딸, 아들과 가족여행을 왔다. 남들은 바다 건너 외국으로 나가는데 내 친구는 틈만 나면 우리나라로 온다. 서른 언저리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다니는 게 좋아 보인다. 차를 빌려 원 없이 구석구석 다니는데 시골 전통시장 구경도 빼놓지 않았다. 찜질방과 해

수탕도 가고, 서해안 타고 내려가 남해로 해서 쪽 동해안으로 올라와서 한계령 공연 날에 맞추어 도착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허름한 티셔츠에 맨 얼굴에 산발인 모습만 보다가 무대에 선 나를 보니 희한한 기분이었나 보다.

그래도 극성맞은 엄마 덕에 어린 날 일 년에 두 번은 다녀가고 한국 학교도 교환학생처럼 다니더니 애들이 우리 말과 글을 하는 데 거침이 없다. K 파워가 세진 센가 보다. 친구가 “이젠 독일서 가져올 건 약밖에 없어. 다른 건 이제 다 여기서 사서 나가야 해”라고 한다.

웰니스(웰빙+해피니스+피트니스) 관광이란 말이 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일하지만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몸과 마음, 정신적 건강을 돌보지 않고 죽자고 밀어붙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 내린다면 큰 문제다.

그래서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3~40% 남아있을 때 충전해야 효율적이라는데, 친구의 가족여행을 보며 석 달씩 충분히 느리게 자기 속도에 맞게 먹고, 자고, 걷고, 쉬는 여행이 부러웠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테니 자기에게 맞는 휴식이 무엇인지 찾아야겠지.

웰니스 관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표를 준 건 자연 숲 치유였고 그다음이 뷰티, 스파였다. 물론 자연 숲 치유 쪽을 추천한다. 힐링, 명상, 한방 두 가지가 더 있지만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숲속 걷기가 최고니까. 겨울 숲도 좋지만 짧은 가을이 가기 전에 숲길 산책이라도 해야지.



가을밤에 든 생각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어렸을 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그때마다 좋았다. 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좋았고 여름은 시원한 바다로 놀러 갈 수 있어서 좋았다. 가을은 선선한 기운에 재킷으로 멋을 낼 수 있어 좋았고 겨울은 하얀 눈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좋았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계절 변화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계절마다 좋은 것보다 싫은 것이 조금씩 늘어갔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에, 미세먼지는 정말이지 기분을 우중충하게 만들었고, 여름이면 끈적한 공기에 뜨거운 열기로 진이 빠졌다. 가을은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 실내 모기와 일교차로 인해 훌쩍거리는 비염이 신경 쓰인다. 겨울은 푸른 잎 하나 없는 황량함이 참 별로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주어진 축복과도 같다는 사계절의 변화가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고 또 폭우도 많이 쏟아졌기에 그 뒤로 찾아온 가을이 반갑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곧 겨울이라고 예

고하듯 금세 쌀쌀해진 아침저녁 기온으로 인해 코를 훌쩍이느라 바쁘다.

그 정도의 변화로 가을을 지나치고 있을 때 우리의 라디오 주치의 김광준 교수님의 이야기가 긴 여운을 남겼다. 가을을 무지하게 타고 있으며 그런 감정들을 시를 쓰거나 작곡을 하면서 풀어내고 있다는 말씀. 의사 선생님도 가을을 탄다니 처음엔 신기했지만 이내 부러워졌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가을 탄다는 건 단순히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정도의 답변이 전문가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변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계셨다니.

그날 이후 스스로 마음먹었다. 이 가을을 제대로 만끽해 보자고. 추남이 되어보기로 말이다. 청명한 하늘도 자주 바라보기. 변해가는 나뭇잎 색도 지켜보고 가을을 담은 노래도 마음껏 불러보기. 자연으로 나가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누려볼 수 있겠지.

오랜만에 춘천으로 향해야겠다. 저 코너 앞에서 바통터치를 기다리는 겨울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가을 감성을 누려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시 한 편.

가 가을이면 언제나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는 그것
을 읊지로 골뱅이...



IBK 기업은행

대출금리, 예금금리...
0.1%면 어디다...

월금통장 금리는
왜 안 따져볼래?

축금 대신 내달라고 하는 사람 꼭 있죠.
수수료가 1,300원이면...

타행 ATM
출금수수료
무제한 면제

연 3% 파킹 금리로
매월 이자 지급 혜택

연3%

0원

슬그머니 돈이 쌓인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통장테크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전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당월(01일~말일)에 무대해택 제공

금리 우대	수수료 무제한 면제
연 3.0% (*23.6.30.현재.세전) 매월 최종잔액 기준 300만 원 이하	당행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전자금융 이용이체수수료

※ 300만 원 초과금액은 고시금리 연 0.1%세전 적용, 매월 두 번째 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이자지급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계약기간 12개월, 최소 1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내 적립

최고 연 5.7% (*23.6.30.현재.세전)
고시금리 연 3.5%, 우대금리 최고 연 2.2%p 우대금리 제공기간: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연 1.0%p, 중소기업 연속기간에 따라 최고 연 1.2%p

※ 만기일지남-만기(후)자는 종도형에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149호(2023.06.30) 유효기간(2023.12.31),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2023-00876호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상기 내용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및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대상은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으로 대상 금융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인출, 5년만행을 초과하는 내리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에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호 제령에 따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기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장세를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 아 갈 수 있 도 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 & A 생태계 조성